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만주국 <대동보(大同報)>의
'여론 형성 의제' 고찰:
사설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락 빙

2023년 8월

만주국 <대동보(大同報)>의
'여론 형성 의제' 고찰:
사설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락 빙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지도교수 최낙진

락빙의 언론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증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 이서현 ----- ①

위 원 ----- 赵博 ----- ①

위 원 ----- 최낙진 ----- ①

Discussion on the 'Agenda for Public
Opinion Formation' of Manchukuo
<Daedong Newspaper>:

Focused on Editorials

Luo Bing
(Supervised by professor Nak-Jin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2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배경	1
II. 이론적 배경	3
1. 만주국 신문 창간배경	3
1) 만주국 식민 문화 체계의 구축	3
2) 9·18 사변 이후 일위 당국의 여론 통제 필요	4
2. 주요 신문에 대한 연구경향	7
1) <대동보(大同報)>에 대한 연구	7
2) 동북 함락시기 기타 주요 신문에 대한 연구	11
3. 사설의 의제설정	13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6
1. 연구문제	16
2. 연구방법	16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17
2) 연구방법	18
3) 신뢰도 검증	21
IV. 연구결과	22
1.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주제 영역	22
2.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메시지 대상	27
3.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프레임	33
1) 비난: 영미의 패권적 행태 및 중국 통치구에 대한 비판	34

2) 찬미: 동아시아를 위해 싸운 일본에 대한 찬양	37
3) 화제전환: 만주국 국민의 민심 안정	40
4) 호소: 만주국 국민 선동을 통한 참전 독려	41
5) 설명: 정책, 역사, 전통문화 관련 정보 제공	43
V. 결론 및 논의	46
1. 연구결과 요약	46
2. 한계 및 제언	51
참고문헌	54
Abstract	56

【표 목차】

<표 1> 분석유목 18
<표 2>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주제 영역 22
<표 3>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메시지 대상 27
<표 4>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프레임 34

<국문 초록>

만주국 <대동보(大同報)>의 '여론 형성 의제' 고찰:

- 사설을 중심으로 -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침략 확장의 길로 나아갔으며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을 연이어 점령했다. 그리고 1931년 '9·18사변'을 일으켜 만주국 괴뢰정권을 수립하고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식민통치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만주국 통치에 있어 당시 일본이 언론을 자신의 스피커로 삼은 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엄격한 언론통제와 언론유도를 통해 언론통일을 도모하고 정부의 국민사상 통제와 영향을 도왔다. <대동보(大同報)>로 대표되는 신문은 일본의 중요한 언론 무기였다. <대동보>는 일본인들의 후원으로 1933년에 창간되어 1942년 10월 다른 신문들과 함께 <강덕신문>으로 개편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발행되었다. 만주국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고 영향력도 가장 큰 중국어 기관지였다. 특히 사설은 정부의 입장과 정치적 태도를 가장 잘 대변했기 때문에 사설에 대한 분석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즉, 사설을 통해 당시 일본이 어떻게 식민지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이끌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33년부터 1942년까지의 <대동보> 사설 1,218건을 대상으로 주제 영역, 메시지 대상, 프레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주제 분야에서는 정치, 군사가 모든 시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동보> 사설은 정치적, 군사적 선전과 선동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정치사상을 선전하고 일본 군사전쟁을 미화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경제, 농업 등 일상적인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만주국 국민들이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제 및 자원 약탈을 더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 교육, 생활건강 주제를 다룸으로써 일본의 가치관과 문화사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문화식민 정책을 구사하였

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응집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념일을 주제로 애국주의를 선전했다. 이처럼 <대동보>는 정치, 군사와 같은 주제는 물론 문화, 교육 등의 사설을 두루 활용하는 강은 양책 즉, 부드러움과 강경함을 병행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다음으로 메시지 대상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일본 정세 및 전쟁과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국가 관련 내용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만주국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는 만주국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밝히면 독자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영미·유럽에 관한 사설이 일본보다도 더 많았다. 이는 적에 대한 부정적 정보와 객관적이지 못한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여 여론을 유도하고 전쟁의 잘못을 영미 등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와 다르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이 아시아를 돕는다는 우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는데, 이는 <대동보> 사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통치구역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대량으로 다룸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항일애국 조직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조선 식민지와 몽골 괴뢰정권에 대한 선전을 통해 일본의 '5족협화' 정책의 성공을 찬미했다. 또한 국가와 관련되지 않은 비국가 관련 내용에서는 기발한 시각이 담기거나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생활 관련 정보를 다룸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국민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동보> 사설 프레임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찬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영미 등이 세계 평화를 파괴했다고 비판하고 중국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동시에 일본의 인자함을 찬양하였다. 이처럼 다른 국가를 비하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일본은 미화하는 대비전략을 활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사건이 빈발하거나 일본이 패배할 경우, 화제 전환으로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또한 일본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전쟁 보급을 위한 막대한 인력, 재력과 자원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공헌과 전쟁 보충 물자를 증산해야 함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국가의 정책, 법률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국민이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사설을 통해 다룸으로써 보다 간결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뒀다.

종합적으로 <대동보> 사설은 일본 정부의 '정치 일기예보'라고 할 수 있다. 시기별 사설 내용 또한 달라졌는데, 이는 일본의 정치적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동보>는 여론의 방향 설정을 통해 일본의 홍보의도와 홍보정책에 따라 사설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사

설 내용이 만주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쉽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의 몰입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만큼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는 전쟁으로 인해 정보도 많이 부족했던 만큼 <대동보>는 만주국 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전쟁이 일어날수록, 중대한 사건일수록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설을 대량으로 다룸으로써 대동아는 반드시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며 일본의 보호가 있으면 반드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등 민심을 안정시켰다.

<대동보> 사설의 전파는 위에서 아래로의 단일적인 전파 방식이며, 설정된 의제는 뚜렷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언론은 의제 설정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유도하고 <대동보>는 일본 정부의 목표 의제와 만주국 청중의 요구를 더 잘 결합하여 최상의 전파 효과를 달성했으며 <대동보>는 여론의 형성과 유도를 잘 알고 있었다. 최상의 전파 효과를 위해, 사설의 의제 선정과 스타일은 국민의 생활과 수요로부터 출발했으며 만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유럽과 미국 등을 중국인과 대립되는 면에 세워 국민당과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간질했다. 그리고 사설에서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 전통 고사와 유가 경전을 많이 인용하여 일본 정부의 태도와 사상을 더욱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만주국 국민들을 포섭하고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동보> 사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대동보> 사설을 통해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인식을 유도하고 재구축하며 나아가 그들의 사상을 전 방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대동보(大同報), 만주국, 일본, 사설, 프레임, 의제설정

I. 서론

1. 연구배경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새로운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 외국 식민지 확장의 '대륙 정책'을 시행했으며 침략 확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10년 8월 일제(일본 제국주의)는 대한 제국(조선왕조)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를 병탄(併呑)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식민통치를 실시했다. 이어서 일본은 한반도를 따라 북상하여 중국 동북의 풍부한 자원을 약탈하는 것을 목표로 1931년 9·18사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중국 동북 3성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통제하여 괴뢰정권 '만주국(伪满洲国, 위만주국)' 정부를 세웠다.

일제는 한반도에 이주이민정책을 대량 쏟아내 조선인들의 만주국 이주를 독려했다. 만주국 말기 국무원 인구통계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은 200만 명이 넘었다. 당시 중국인과 조선인들을 포함한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만주국이라는 일제가 세운 괴뢰정권 하에 살아가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모두 억압받고 있었다. 일본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중국인과 조선인에게 만주국 수립은 피눈물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동시에 희망의 빛도 비춰져 안식처를 찾은 듯 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거센 암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신문은 바로 그 시대의 거울이자 만주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살아있는 자료이다. 신문의 뉴스면에서는 만주국의 변명과 몰락, 식민지 함락의 굴욕과 무력감을 볼 수 있고, 문학면에서는 사상의 진보와 희망,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과 조선 문학의 활성화와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옛 신문을 펼쳐면 70년 전의 역사적 풍운을 들여다보는 듯하여 피비린내, 싸움소리, 중일전쟁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태평양전쟁 등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일본은 만주국을 자신들의 전략기지로 삼아 만주국의 모든 것을 전쟁을 위해 봉사하게 했고, 이로 인해 자원과 경제적 약탈, 정신적 통제는 절정에 달했다. 일본은 만주국 건립 초기에는 자신만만했지만 만주국 말기에 이르러서는 점점 퇴패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

경 하에서 일본 정부의 만주국 신문에 대한 여론 통제는 절정에 달했고 만주국 내의 신문 개편과 함께 신문사의 대거 폐간이 이루어졌으며 신문 보도도 객관성을 잃었다. 또한 언론의 소재 선정, 시각, 관점이 단일적이면서 모든 언론 매체가 일본 정부의 메가폰이 되었다.

특히 신문 사설은 정책적, 지향적, 지도적 특성이 뚜렷하며 신문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깃발이라 할 수 있다. 사설 연구는 신문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올바른 여론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사설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설의 ‘목소리론’, ‘깃발론’은 사설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신문 사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보(申報)>와 <대공보(大公報)>와 같은 대중화된 상업신문에 집중되어 있었다(方汉奇, 1992). 특히 중국 동북은 지리적으로 외지이기 때문에 현재 만주국 내 신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 내 사설 내용 분석은 여전히 연구 공백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전쟁기간 동안 정보가 차단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극심한 수요와 정보의 심각한 부족 사이의 불일치가 있어 엄청난 정보 격차가 생겼다. 일본 침략자들은 이 시기의 특수성을 포착하고 신문 ‘의제 설정 기능’ 이론을 응용하여 필승의 신념을 대량으로 주입했다. 또한 전쟁선전을 중심으로 사회여론을 유도하며 만주국 내 민중의 사상을 통제하고 인도주의를 논조로 하여 전시선전에 적극 나섰다. 특히 만주국 말기의 사설은 줄곧 1면에 배치하였고, 게재 건수도 증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사설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주국 시기 만주국의 정부 기관지였던 <대동보(大同報)>에 실린 사설 분석을 통해 일본이 어떻게 만주국을 조종해 괴뢰통치를 했는지, 일제의 정책적 생각을 신문을 통해 어떻게 전파했는지 등에 주목함으로써 당시의 언론을 통한 선동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이 어떻게 일본의 정치적 주장을 전파하고 만주국민을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선동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동시에 일본이 어떻게 의제 설정을 통해 신문 사설의 주제 선정을 조종하였으며 독자의 심리적 요구에 더 잘 부합하고 전파 효과를 극대화했는지 분석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만주국 신문 창간배경

일본은 1931년 중국에서 9·18사변이 일어난 이듬해 3월 20일, 동북 3성에 만주국(위만주국, 伪满洲国)을 세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즉위시키고 중국, 아시아 및 세계 침탈을 계획하면서 세계 제패의 야망을 키웠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해 반파쇼의 일원이 되었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장이었고 만주국은 일본의 중국 전략기지였다. 일본 정부는 만주국에서 경제적 약탈과 사상적 통제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을 일제의 전쟁 승리를 위한 무기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1) 만주국 식민 문화 체계의 구축

일본은 중국 동북을 점령하기 위해 장기간 음모를 꾸미고 러일전쟁 이후 실질적인 침략에 들어갔다. 1904년 중국 동북지역을 전장으로 한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는 결국 패전했다. 러시아는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에서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러시아는 여순구(旅順口)와 대련만(大連灣) 및 그 부근 영토 영수(한자)의 임차권과 관련된 기타 특권을 모두 일본 정부에 양도하였다. 또한 장춘(寬城子)에서 여순구(旅順口)까지의 철도와 모든 지선 및 그 부속의 모든 권력과 재산, 탄광을 일본 정부에 양도했다. 일본은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 1907년 4월 개업)를 창립하였다. 만철은 일본이 중국 동북부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활동을 지휘하는 중심지로 철도 외에도 철도 양쪽에 16.7~3000m 규모의 만철 부속지를 갖고 있었으며, 부속지의 총 면적은 482.9km²(만철은 9.18사변 이후 1932년 철도 부속지의 행정권을 만주국에 넘겼다)에 달했다. 일본은 10km당 15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고 남만철도는 일본 대륙정책의 거점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

은 만철 부속지 점령에 만족하지 못했고 1931년 9·18사변을 일으켰다. 일본은 1932년 괴뢰 정권인 '만주국(伪满洲国, 위만주국)'을 세우고 장춘(長春)을 '신경(新京)'으로 개명했다(해학시, 1995).

'만주국'은 서양 역사에선 '괴뢰국'이라 부르고 중국학계에선 불법을 지칭하는 '위(僞)'를 붙여 '위만주국'이라 부르는데, 일본의 준/반식민지라는 틀 속에서 '억압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족협작의 '독립국'이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붕괴 시점까지 헌법과 국적법을 제정하지 않은 기형적 '국민국가'였으며, 식민지 건설이 불가능했던 국제정적 상황에서 탄생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통치 양식 중 하나였다(김혜주, 2022).

1934년 푸이는 만주국 황제로 즉위했다. 일본은 괴뢰정부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동북의 정치 지배적 지위를 확립한 후 경제, 정치, 사상, 문화 등 여러 면으로 동북 민중들의 민족 문화 전승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정치적 통제, 경제적 침략, 문화적 침투는 표면에서 내부로, 위에서 아래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언어에서 신앙으로까지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치는 동북을 식민지 침략의 원료 공급처이자 중요한 근거지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일본은 정치 경제적인 식민화에 비해, 사상 문화적인 식민화야말로 민족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식민지역을 영구 점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일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일만일체(日滿一體)와 동문동종(同文同種), 5족협화(五族協和)를 외치며 이러한 신념이 민중사상에 깊숙이 파고들도록 했다(관첩, 2006). 문화 식민화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을 통제하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대중 매체 도구를 이용하여 여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일본 침략자들은 동북 함락 지역에 일본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식민지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국 동북 만주국에 거주하는 한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들을 모두 일본제국의 지배를 받는 양민(良民)으로 개조하려고 했다(왕승례, 1991).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만주국에서 일본문화 식민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중국어 정부기관지인 <대동보(大同報)>가 등장했다.

2) 9·18사변 이후 일위 당국의 여론 통제 필요

20세기 초, 러시아와 일본은 동북지역에서 여론 도구 활용에 앞장섰다. 1903년 동청철도 기관지의 러시아어판 <하얼빈신문(哈尔滨新闻)>이 창간되었다. 1906년 3월 14일 하얼빈에

서 동청철도(이후의 중동철도)의 기관지인 <극동보(远东報)>(러시아 침략정책 홍보물)를 창간하였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 경제,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신문 등 매스미디어의 전파 작용과 ‘문화통치’의 효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본인은 신문을 이용하여 침략에 대한 여론준비 및 관련 문화침투 선전을 했다. 1895년부터 1911년까지 15년 동안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발행한 신문은 약 55종으로 확인된 바 있다(백운생, 1998). 반면, 중국과 한반도 지역은 신문 발행시기부터 내용 면에서까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다.

9·18사변 이전 중국 동북지역에서 중국인이 창간한 관보와 사보는 거의 20개, 통신사는 5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일본인이 동북에서 창간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신문은 20여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신문은 100여개, 통신사는 10여개에 달했다. 통계에 따르면, 1945년 이전에 일본인이 동북에서 운영한 일본어 신문은 약 60개이다. 중국어판과 영어판 신문도 있다(武强, 1989).

이에 비해 일본인이 만든 일본어와 조선 신문은 양적으로 압도적이다. 일본인들이 동북에서 만든 신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동북지역의 대표 신문인 <성경시보(盛京時報)>이다. 이 신문은 일본 외무국과 특무기관, 일본 점령군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일본의 대표적 언론인인 나카지마 마사오(中島眞雄)가 창간했다(임어당, 2008). 그는 신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 내 일본의 신문 발행은 사실상 ‘소프트 인베이션(Soft invasion)’의 길을 걷고 있었다. <성경시보>는 38년간의 신문사 운영을 통해 문화 침략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고 성공적인 선동모델이 되었다(蔣蕾, 2009).

일본인이 여론 통제를 시도함과 동시에 중국 지식인들도 여론 선도를 위한 매스컴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북신보(大北新報)> 창간을 만장일치로 보이콧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나카지마는 1922년 <성경시보>를 모지(母報)로 소련 <극동보(远东報)>에 맞서 북만 지방의 뉴스를 부각시키는 자보(子報)인 <대북신보>를 하얼빈에서 창간하려 했으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하얼빈 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과공진, 1985). 하얼빈은 <대북신보>의 발간을 저지하기 위해 ‘빈장강각계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성경시보>는 일본 기관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창간 후 17-18년 동안 사기와 모함을 비롯해 못하는 일이 없었지만 일본의 보호로 우리 관서의 단속을 받지 않고 우리 관서는 아무리욕을 먹더라도 참기만 할뿐 감히 화를 내지 못했다. … 여기에 또 <대북신보>까지 창간해 두 번째의 <성경시보>로 만들어 더욱 악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각계 합동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개인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 둘째, 신문이 출판된 후 중화민국 인민은 열람할 수 없으며 <성경시보>도 구입해서는 안 된다. 하얼빈 인민들의 보이콧으로 나카지마는 1922년 9월 20일 <대북신보> 발행 계획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나카지마의 신문 운영 좌절은 훗날 일본의 식민지 신문 발행에 근간이 되었다.

9·18사변 후 대량의 신문들이 항일, 반일 활동을 통해 일본 침략전쟁의 만행을 보도하는 동시에 진보적인 사상도 전달했다. 일본 침략자들은 동북이 급속히 함락되자 시국과 역사 '교훈'을 감안하여 군사적으로 중국 동북지방을 점령한 후 곧바로 여론을 완전히 통제하여 군사행동 못지않은 속도로 대중매체를 신속히 점령하였다. 따라서 9·18사변 다음날, 심양의 두 반일신문인 <신민만보(新民晚報)>와 <동북민중보(东北民众報)>의 발행이 금지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기존 신문들은 발행 금지되거나 폐간되었으며,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언론인들은 대거 체포됐다. 중국인 신문사들이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 잇따라 폐쇄, 점령 또는 폐간되면서 나머지 각 신문은 폐간되고 일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단속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동북에서 여론은 존재하지 않았다(길림인민출판사, 2006).

일본 관동군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 중국 신문을 다시 육성하기 시작했고, 매국노 문인들을 내세워 간행물을 출간했으며 일본인들은 신문 발행의 실권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엄격한 신문 검열 제도를 실시했고 일제가 길림성을 점령한 후 시내 각 신문사에 명령을 내려 매일 가인쇄된 신문을 오후 3시 정각에 일본군 경비사령부로 보내 사령관이 서명하고 인쇄에 넘기도록 했다. 사변 이후의 동북신문은 일본의 통제 하에 일본 정부가 창도하는 여론의 방향을 강요받거나 스스로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冯岩, 2006).

9·18사변 이후 중국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세계 각국이 일본에 '침략자'라는 딱지를 붙이려 하자 일본은 언론을 통제하여 소식을 봉쇄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려고 했다. 만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사상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1932년 만주국 <출판법>을 반포하고 만주국 통신사를 설립해 언론을 통제했다(何兰, 2005).

동북 언론계는 곧바로 일위(일본 침략시기의 일본과 만주국)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1932년 10월 24일, 만주국 <출판법>이 반포되었고, (伪)'국가 조직의 대강'을 바꾸고 (伪)'국가 존재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伪)'외교 및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伪)'국교'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파괴' 행위 등은 모두 출판을 금지하였다(만주국 국무원 1933년 신문 통계).

이후 일위 당국은 출판물에 대해 발행을 금지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伪)문교부(伪文教部)에 따르면, 1932년 상반기 5개월 동안에만 650만여 권의 도서가 소각되었다. 또한 1934년 6월에만 30여 종의 신문이 수입 금지되었다. 입체적인 식민지 신문 통제 체계를 재건해야만 중국 동북 신문업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관동군 사령관인 혼조시게르(本庄繁)는 중국에서 일찍이 신문을 발행하고 중국의 국정에 정통한 일본인들을 초청하여 식민지 신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토론했다.

1931년 혼조시게르(本庄繁)는 <성경시보>의 사하라도쿠스케(佐原笃介) 전 사장을 초청하여 신문 출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사하라는 혼조시게르에게 “만주 여론은 아직 가장 위험한 시기여서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에 불리하다”라고 전했다. 얼마 후 관동군의 지시로 <대동보(大同報)>가 출판되었다. <대동보>는 중국의 오랜 신문인 왕희철(王希哲)을 명예사장으로 내세웠고 실권은 일본 관동군이 도고후미오(都甲文雄)에게 맡겼다. <대동보>는 겉보기에는 개인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주국 국무원의 기관지로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이미지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주요 신문에 대한 연구경향

1) <대동보(大同報)>에 대한 연구

(1) <대동보(大同報)> 개요

1932년 신경(만주의 수도)에서 창간한 <대동보(大同報)>는 만주 정부의 기관지이자 영향이 가장 크고 통제가 가장 엄격하며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다. 반절식으로 되어 있고 일간지에 속하며 중국 동북지역의 유명한 신문 중의 하나로 1936년 위만홍보협회(伪满弘报协会)에 가입했다. 출판 경비는 만주 국무원이 제공했고, 만주국이 설립되자마자 <대동보>에 3만 위안(위만 권)을 투자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출판되었다. 창간 후 광고수입이 많은 데다 정부 지원까지 겹쳐 경제상황이 같은 시기 다른 신문보다 훨씬

좋았다(贾艳玲, 2011).

창간일은 <대동보> 제호 아래에 1913년에 창간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출판 총기호로 보아 1932년 1월 29일에 창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1932년 3월 1일 또는 15일 창간했다는 기록도 있다. 현재 마이크로필름에 실린 최초의 신문 발행일은 1933년 1월 13일이고 마지막 신문 발행일은 1942년 10월이다. <길림성성지>에는 <대동보>가 1943년 6월 1일 <강덕신문>으로 개칭되었고, 1945년 8월 16일 <강덕신문>이 마지막으로 출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신문의 조직 구성은 총무국, 편집국, 영업국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름만 봐도 일본 신문사 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장, 주간, 총무처장, 영업국장, 편집국장은 모두 일본인이 맡고 있다. 총무는 지금의 행정인사 부서와 비슷하고 영업국 아래에 발행과 광고 등이 있다. 편집부 아래에 편집출판부, 문화부, 번역부, 교정부 등이 있다(길림성지방지편찬위원회, 2006: 58-59). 1937년 11월 <만주통신조사>에 따르면, <대동보>는 2만5000부 발행되었고 정부가 구독을 강제하였기에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1934년 12월 만철조사부의 <만주신문통신조사> 기록에 따르면, 그해 이 신문은 일본인 15명, 중국인 70명이 있었다. 뉴스 소재는 대부분 '국가통신사'가 제공하고 문학면 원고는 저자들이 제공했다. 사설과 뉴스 지면의 기타 보도와 내보낸 내용은 모두 친일 입장이었다(길림성 지방지편찬위원회, 길림인민출판사, 2006: 58-59).

1936년 홍보협회에 가입한 후, <대동보> 사장은 중국에서 활약한 일본 신문인이자 만주국 통신사 이사 중 한 명인 일본인 소메야호구라(染谷保藏)가 맡았다. 이는 <대동보>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고 <대동보>가 전하는 내용은 일본 정부가 만주국 통신사를 통해 전하려 했기 때문이다. 신문이 인쇄되기 전에 엄격한 신문 검열을 거치기 때문에 <대동보>는 언론지향에서 일제의 조력자가 되었다.

<대동보> 지면은 8면 안팎으로 사설, 정치뉴스, 군사신문, 일본국정, 각지신문, 홍보기사, 생활광고, 문학오락, 여성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933년부터 신문은 총 두 장으로 8개 면을 두었고, 1934년 5월부터는 하루 두 번 조간(朝刊)과 석간(19刊)으로 인쇄되었다. 이 중에서 사설은 신문사의 태도를 가장 잘 대변하는 글이다. 사설은 보통 고참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쓰는데, 이들은 경력이 풍부하고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설 주제 선정은 당시 사회 이슈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강압적인 언론 통제 환경 속에서 사설은 일본과 만주국

정권을 위한 것이었다.

뉴스면에는 시사, 국내국제뉴스, 일본뉴스, 경제사회뉴스 등이 대거 등장한다. 만주국 지역별로 지역신문면도 개설되었다. 사설은 매우 빈번하게 발표되었고 ‘신(新)’, ‘칙(則)’, ‘철불(鐵佛)’이라고 서명한 것도 있고 서명이 없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글은 모두 일본 정부의 견해를 대변했다. 대부분 신문 1면에 등장해 정부의 시사나 정책에 대해 논평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시사에 대해 논평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적으로 발표해 여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본을 선양하고 찬미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만주국 신문 중에서 신문의 문예면이 가장 유명했는데 예를 들어 동시대 <만선일보>의 문예면에는 애국적인 조선문학가, 시인 등이 많이 배출되어 인구에 회자되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동보>도 마찬가지다. <대동보> 문예면의 ‘야초’, ‘대동클럽’ 등의 칼럼에서는 애국 작가와 시인도 많이 배출되었다. 문예면에는 아동, 여성, 건강, 만화 등의 작은 코너도 있었다.

문예면은 뉴스면과 달리 오랫동안 일본 신문 감찰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그래서 문학인들이 진보적 사상, 애국주의, 구국주의 사상을 담은 문학작품을 <대동보> 문예면을 통해 발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주국 시대의 신문에는 같은 신문에 친일과 항일이 병존하고, 사설과 뉴스는 일본의 ‘동아시아 공영(共榮)’ 이념을 강하게 내세우지만 몇 페이지 떨어진 문예면에는 애국심, 구국정서가 넘쳐나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대동보> 광고면도 형식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풍부했다. 과학기술과 건강의 관점에서 일본의 선진적인 제약, 뷰티, 요리 조미료, 영화 제작, 공예 제조 기술 등을 전시했다. 광고 조판, 인쇄는 동시대 다른 신문보다 훨씬 앞섰다. 일본 당국이 광고를 시작으로 선진 기술과 문화에 대한 침투 수출을 통해 취미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은연중에 만주국 국민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광고 역사에 대한 연구도 현재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대동보>는 신문 선택부터 시사사평, 문화생활의 육성까지 일본인의 정신과 문화적 정서를 드러냈으며 식민지 성격이 있다. 따라서 <대동보>는 중국 동북지역 신문사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와 일본 식민전쟁을 연구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2) <대동보(大同報)>에 관한 선행연구

<대동보>는 동북 함락시기 신문 중에서 현존 부수가 비교적 많고 결손이 비교적 적은 신문이다. <대동보>의 마이크로필름은 북경국가도서관, 요녕성도서관, 길림성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데 필름은 중화전국도서관문헌축미센터 요녕도서관에서 1986년에 제작, 1933년 1월 13일부터 1942년 10월 31일까지의 <대동보>를 축소한 것이며 소량의 결손이 있다. 마이크로필름에는 겹침과 착오가 간혹 있었고 인위적으로 손상된 지면도 있었다. 길림성 도서관에는 1938년 이후의 원판이, 장춘시도서관에는 총 4부의 원판이 있다.

현재 <대동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문학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다뤄졌다. 길림 대학의 장레이(蔣蕾) 박사는 2008년 박사논문인 ‘정신저항: 동북 함락구 신문문화면의 정치적 신분과 문화적 신분: <대동보>를 표본으로 한 역사적 고찰’에서 <대동보> 문화면 분석을 통해 동북 함락시기의 만주문학을 재평가했다. 또한 이미 대중적으로 분석된 인물들을 재분석해 이미 출판된 작품의 오류를 수정했다. 고증에 따르면, <대동보>에 있는 ‘대동클럽’ 문화면에서 최초의 저항문학이 등장했는데, 진화(陳華), 소군(蕭軍), 소홍(蕭紅), 손릉(孫陵), 양삭(楊朔) 등 애국 문인들이 동북 함락 후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저항의식이 뚜렷한 문학작품을 발표하여 동북 인민의 정신적 저항의 거점이 되었다. 문화적 신분과 정치적 신분이 분열되고, 신문의 중심내용과 문화면 내용이 어긋나는 동북 함락 지역의 중문 신문의 특수성도 밝혀냈다. 그는 그 특성을 “문화면의 이반(離叛)은 동북 함락 지역의 중문 신문에 보편화돼 있다. 이는 동북 인민의 끈질긴 저항의 결과이자 일본 침략자 통치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에 대한 연구는 저항문학 문예면 ‘야초(夜哨)’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장귀(張貴)의 ‘문단호각항전선봉위만 <대동보>, <야초> 부간반만항일사건기록’은 배경, 편집자, 저자, 내용분석, 폐간 원인 및 저자, 편집자의 결말 등에 대해 다루었다. 풍암(馮岩)의 ‘구장춘대동보(舊長春的大同報)’도 ‘야초’를 비중 있게 다뤘다. 또 중국의 2차 세계대전 노동자 관련 사이트에서 2차 세계대전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네티즌들에게 자료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1938년부터 1942년까지 <대동보>의 노동자 관련 자료 목록을 편집하기도 했다. 주로 침략 전쟁과 자원 수탈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노동자를 강제 노역시킨 일본 침략자들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 현재 <대동보>에 대한 내용연구는 간단한 소개와 문학에 관련된 연구에만 그

치고 있으며 신문사, 동북 함락 연구 등과 관련된 저서와 논문에서만 일부 등장하고 있다. <대동보>의 뉴스면, 사설, 광고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전문성 있는 논문은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동보> 사설 내용 분석을 통하여 당시 사설을 통해 어떤 선전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동북 함락시기 기타 주요 신문에 대한 연구

일본 침략자들이 통제하고 동북에서 발행되며 일만공영, 동아시아성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중문신문으로는 장춘의 <대동보(大同報)>(1932년-1945년), 요녕의 <성경시보(盛京時報)>(1906년-1944년), 그 외에 대련의 <태동일보(泰東日報)>(1908년-1945년), 하얼빈의 <대북신보(大北新報)>(1922년-1945년)가 유명했다. 일본어 신문으로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의 기관지인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1907년-1945년)이 있었다.

동북 함락시기의 신문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신문은 <성경시보>였다. <성경시보>는 일본인이 동북에서 처음으로 창간한 중문일보로 1906년 10월 18일 나카지마 마오(中島真雄)가 봉천(奉天) 즉, 선양(沈陽)에서 창간해 기쿠치 사다하루(池貞貞二)가 주필을 맡고, 일본인 사하라아쓰스케(佐原篤介), 료타니호조(染谷保藏)가 나카지마 마오의 뒤를 이어 책임자로 있었다. 1944년 9월 15일 <강덕신문(康德新聞)> 봉천판으로 바뀌었다. 이 신문은 일본 침략자들이 중국 동북에서의 가장 중요한 대변자 역할을 했고 ‘키워드’ 기사 보도에서 일본 본토 여론과 일치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경제적으로는 만주철도회사의 후원을 받았고, 편집인원은 주로 일본인이었고 고용된 중국인도 있었다. <성경시보>는 신문기사와 관련해서는 일본 관동군 사령부의 특권을 내세워 중국 정치 문제를 조작하고 평론했으며 유연비어도 퍼뜨려 침략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9·18사변 이후 가장 전성기였던 <성경시보>는 한때 18만 부를 발행해 만주국 최고 신문이 되었다. 이 신문은 창간부터 종간까지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과 식민 정책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여론 선도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중국인민문화 식재에 적극 협력해 왔다. <성경시보>에는 역사, 문화, 군사, 경제, 위생, 민속, 교육, 지리, 풍물, 고고학, 보양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38년 동안의 동북의 발전이 기록되어 있다. 요녕성도서관에 소장된

<성경시보>는 정본 합본 178책이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 내에 남아 있는 비교적 완전한 세트이다. 요녕성도서관은 <성경시보> 마이크로필름 168롤을 촬영해 신문을 장기보존(일반적으로 마이크로필름의 보존기간 500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경시보>의 미니카피 목록(1906-1945)을 편집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성경시보> 관련 논문은 비교적 많다. 곡효범(曲晓範)과 반화(潘華)는 ‘나카지마마오와 근대중국동북의 일제식민화신문’에서 <성경시보>의 배경과 창간인인 나카지마 마오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종합연구로는 왕로(王璐)의 ‘<성경시보> 연구: 1906년 -1931년 문학과 역사에 관한 연구’가 있고, 리려(李丽)의 ‘청말 <성경시보> 연구’도 있다. 전문보도 연구로는 장민(张敏)의 ‘<성경시보>와 청말 동북3성 관제개혁’, 하지곤(夏志坤), 장경빈(张庆斌)의 ‘<성경시보> 동성과 부도사건 사료적 가치평가 분석’, 송해연(宋海燕)의 ‘<성경시보>근대소설 개황’ 등이 있다. 언론선도 연구에 있어서는 염정례(阎正礼)의 ‘<성경시보>의 언론선전과 신해혁명’, 왕효람(王晓岚), 대건병(戴建兵)의 ‘<성경시보>의 칠칠사변 보도 연구’ 등이 있다. 이 외에 초윤명(焦润明)의 ‘<성경시보> 광고소건 동북지방에 대한 일본의 노예화와 약탈’은 신문의 광고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방식과 수단인 “협화어(協和語)”의 광범위한 사용과 일제 식민지교육확산 및 “협화영화(協和電影)” 홍보에 대해 다루었다. 유사 연구로는 동서준(董瑞军)의 ‘<성경시보> 광고와 일본의 중국동북 침략’, 손려금(孙丽琴)의 ‘<성경시보> 서양물품 광고에 관한 식민문화해독’ 등이 있다.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의 기관지로, 일본이 동북 침략 후 최초로 창간한 가장 세력이 큰 일본 신문이다. 1907년 11월 23일 창간되었고 고 처음에는 일본어였으나 후에는 영어와 중국어 칼럼을 추가하였다.

1927년 <요동신보(遼東新報)>와 합병하여 <만주일보(滿洲日報)>로 제호를 변경했고, 1935년 <대련신문(大連新聞)>을 매수하여 <만주일일신문>으로 복간했다가 1940년 7월 <대련일일신문(大連日日新聞)>으로 제호를 개칭했고, 1945년 8월 16일 폐간되었다. 신문의 독자층은 동북 침략의 사명을 지닌 일본인이다. 이 신문은 일본과 만주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위만적인 식민지배를 도모했다. 왕리(王利)의 석사 논문 ‘<빈강일보> 연구’는 <빈강일보>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빈강일보>는 일본과 만주국의 2차 신문 정비의 배경 아래 민영 신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지원을 받는 준관영 신문이다. 일본의 전면적인 중국 침략전쟁을 홍보하고 일본의 동북 지배를 위해 “여론으로 지지하고”, “우방일본” 문화와 “일만화합(日滿和諧), 왕도락토(王道樂土)”를 내세우기 위해 창

간되었다.

1937년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언론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위만홍보협회는 중국어, 일본어 신문의 “일성일보(一省一報)” 방침에 따라 매수, 합병, 관제, 종간, 신규취급 등을 통해 신문을 정비하고 가맹 신문을 29개로 확대하여 만주국 각 성의 신문을 전면 통제했다. 하얼빈에서는 1937년 9월 중국어 <국제협보>, <빈강시보>, <하얼빈공보>를 폐간하고 인원을 통합하여 1937년 11월 1일 옛 <하얼빈공보> 사지에서 이른바 “민간신문”인 <빈강일보>를 창간하였는데 일본 관동군은 매국노인 왕유주(王維周)를 사장으로 파견하였다. 이처럼 일본 침략자들은 동북 함락시기 여론을 통제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해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주력했고 동북의 신문 홍보는 당국의 장악 속에 있었다.

3. 사설의 의제설정

신문 사설에 대한 연구는 신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사설에 대한 분석도 여러 각도로 연구할 수 있다. 신문 사설 연구는 신문 사설의 거시 구조에 대한 연구와 신문 사설에 사용되는 언어 표현과 전략에 대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거시 구조에 관한 연구는 사설의 위치, 유형, 제시 방식, 태도등을 다룬 연구(유세경·김미라, 2002; 서라미·정재민, 2007)와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구(김정아·채백, 2008), 그리고 담화 분석적으로 접근한 연구(곡로, 2008; 김해연, 2017) 등이 있다.

張友漁(1998)은 사설을 “신문사가 내는 목소리”라고 표현한다. 사설은 의견기사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지향하는 보도기사와는 구별되며, 주관적이며 독자들의 직접적인 행위를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기사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도 신문사의 논조는 사설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사설은 개인이 쓰지만 기사화되기 전에 점검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로 볼 수 있다.

특정적인 역사 시기와 결합하여 볼 때, 옛 신문의 사설은 명백한 정책 및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고 일방적인 전파와 독자의 수용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다(鍾嬌,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사설의 주제 선택 유형으로부터 사설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

제 선정 유형에 대해서는 의제 설정 이론과 결합하여 분석을 해야 한다.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의제설정(agenda setting)은 1970년대 이후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이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안정운·이종혁, 2015). 1972년 맥스웰 매콤스(Maxwell McCombs)와 도널드 쇼(Donald Shaw)가 이 이론을 내놓았다. 핵심 관점은 특정 단계에서 대중 매체의 특정 사건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두드러진 보도는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사회 여론 토론의 중심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의제 설정 기능이 바로 미디어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보다 합리적인 인식도 있다. 특정 유형의 뉴스 보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대중이 중요하게 여기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Severin & Tankard, 2013). 대중매체는 대중을 위해 ‘의사일정’을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의 뉴스 보도 및 정보 전달 활동은 다양한 ‘의제’에 다양한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여 주변 세계의 ‘큰 일’과 그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郭庆光, 2011).

초기 이론은 수용자가 뉴스 매체에서 많이 보도한 뉴스는 중요하게, 적게 보도한 뉴스는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슈 현저성의 전이(The salient of issue)’에 초점을 맞추었는데(McCombs & Shaw, 1972), 의제설정의 주체인 미디어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차 의제설정 이론이 ‘무엇(What)’을 받아들이는지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후에 연구된 2차 의제설정 이론은 수용자가 ‘어떻게(How)’ 받아들이는지에 관해 주목했다. 즉, 1차 의제설정 이론이 말하는 이슈 전이를 넘어서 이슈나 대상(object)이 가지고 있는 속성(attribute)의 현저성 전이를 연구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 매체를 의제설정의 주체로 형성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슈에 대한 프레임과 관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살펴 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근으로 올수록 수용자의 상호 작용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이론적 논의는 더욱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김성태·이영환, 2006).

의제 설정에 대해서 현재 학계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연구 단계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쇼와 그의 동료들(Shaw, 1999)은 ‘의제 융합(agenda-meld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의제 융합이란, 사람이 특정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그 집단의 의제를 학습하고 동화하며 끊임없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의제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haw, 1999). 즉, 의제 설정의 주제는 더 이상 대중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룹과 개인도 포함할 수 있으며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새로운 단계의 이론은 만주국의 신문 연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의 의제 설정 이론과 결합하여 신문 사설의 언론 지향성과 정부의 언론 조작 및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만주국 신문의 문학면과 일부 초보적인 자료 정리 차원에 집중되었으며 정부 기관지인 <대동보>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33년부터 1942년까지의 <대동보> 사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신문의 발행 취지와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정부가 어떻게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 형성을 유도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만주국에 관한 연구는 근대 동아시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태평양전쟁 당시의 만주국은 일본의 중요한 활동기지로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일본, 한반도 간의 긴밀한 유대를 구축한 곳이기도 하다.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일본은 만주를 상대로 경제적인 약탈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사상통제도 진행했다. 언론은 일본이 만주국에서의 스피커 역할을 했는데, 언론은 의제 설정을 통해 보도 내용을 선택함으로써 독자의 사상과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전파력과 영향력이 가장 컸던 언론이 바로 신문이었다. 또한 전쟁시기였던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보 추구에 대한 독자의 욕구가 컸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유일한 미디어인 신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동보>는 만주국 정부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당시 정부의 입장과 사회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의 사설 분석을 통해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어떤 대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뉴스 프레임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동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 연구문제 1. <대동보> 사설의 주제 영역은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대동보> 사설의 메시지 대상은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대동보> 사설의 프레임은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만주국에서 발행되던 많은 신문 중에서 <대동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동보>는 만주국 정부 기관지로 일본 정부는 물론 만주국 정부의 태도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신문이다. 또한 만주 국내 다른 신문의 편집 기준이었기 때문에 <대동보>는 그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대동보>는 발행부수, 영향력, 독자 수에 있어서 모두 만주국 시대 최대 신문이라는 점이다. 셋째, <대동보>의 흥망성쇠는 만주국의 변영, 쇠락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 신문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변화를 보다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사설은 신문사의 입장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정치인과 문인들의 정치이념을 고취하고 정치사상을 홍보하며 사회변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즉, 사설은 특정 이슈에 대한 분명한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하는 ‘언어행위 공간’으로, 그 자체로서 해당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적 준거 틀’을 제공한다. <대동보> 사설 또한 여론을 유도하고 신문 제작·발행의 정치적 목적을 담았다. 이 신문은 일중만(日华满)의 화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중국의 다른 지역의 정책적 단점을 비판하고 만주국민의 생활과 습관을 지도하고 배치하며 일본의 정신과 문화 규범을 중국인의 머릿속에 주입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은 만주국민의 행동과 사고를 길들이고 최면 효과를 냈으며, 일반 대중들을 저항할 줄 모르고 순종만 하는 ‘일방통행적 인간’으로 만들어 일본의 만주국 통치에 유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 만주국 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가장 잘 대변했던 <대동보>의 사설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전시의 언론 매체는 날카로운 전쟁 무기로 활용되기 때문에 통치 당국은 뉴스 전파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뉴스 전파 내용, 전파 경로, 전파자의 입장과 원칙은 반드시 통제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했다(천민직, 2006). 일본 괴뢰정부의 언론 도구인 <대동보>의 이런 기능은 만주국 시기에 가장 잘 발휘되었고, 그 특징 중 하나는 매년 평균 100여 편의 ‘사설’이 신문 헤드라인에 실렸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에디토리얼(Editorial) 또는 리딩아티클(Leading Article)이라 불리는 신문의 논평으로, 신문사에서 직접 쓰고 신문사의 의견을 대표하며 시사에 대한 해석, 평판 또는 주장

을 하는 것이다(장우어, 1982).

현재 <대동보>는 1933년 1월 13일부터 1942년 10월 31일까지 약 10년 간 발행된 신문만 존재한다. 사설 내용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확보 가능한 모든 사설 내용을 내용분석하고, 전쟁과 역사적 배경과 결부하여 수량, 소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0년 간(1933년 3월 - 1942년 10월) <대동보>에 게재된 사설 1,218건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동보> 사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내용분석은 분석대상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기법으로 본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또한 내용분석은 연구 자료가 비교적 많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통계분석을 할 수 있으며 객관적, 체계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유목이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분석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유목을 활용하는 연역적 방법을 통해 분석유목을 도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사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어와 핵심어구 등을 추출하여 유사한 것끼리 묶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 분석유목을 도출했다. 분석유목은 시기, 주제영역, 메시지 대상, 프레임이다. 분석유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유목

구분	세부내용
시기	① 만주국 설립시기 ② 중일전쟁시기 ③ 태평양전쟁시기
주제 영역	① 정치 ② 군사 ③ 농업 ④ 경제 ⑤ 문화·사상·교육 ⑥ 건강·생활 ⑦ 기념일·명절
메시지 대상	① 위만주국 ② 일본 ③ 중국통치구역 ④ 소련 ⑤ 영미 유럽 및 동남아 ⑥ 조선 ⑦ 몽골 ⑧ 비(非)국가
프레임	① 비난 ② 찬미 ③ 환제전환 ④ 호소 ⑤ 설명

10년간의 신문 사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기를 ① 만주국 설립시기 ② 중일전쟁시기 ③ 태평양전쟁시기 등 3개로 구분했다. 신문이 담당하는 기능은 역사적 단계에 따라 다르다. 만주국은 1932년 설립 직후부터 신문사를 정비하고 일본 정부에 봉사하는 신문을 창간했다. 그 일환으로 1933년 <대동보>가 창간됐다.

본 연구에서는 사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대한 사건을 시점으로 시기를 3개로 구분했다. 먼저 만주국 설립시기와 <대동보> 창간시기를 종합하면 1933년부터 1936년까지를 ‘만주국 설립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만주국이 발전하는 가운데 전쟁이 계속되고, 1937년 7월 7일 일본이 ‘77사변’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본격적인 항일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또한 세계를 놀라게 한 ‘남경대학살’도 1937년에 발생해 중일전쟁이 격렬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37년부터 1940년까지를 ‘중일전쟁시기’로 구분했다. 일본의 전쟁 책략과 중심이 바뀌면서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만주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었다. 따라서 1941년과 1942년을 ‘태평양전쟁시기’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주제 영역은 사설을 통해 신문이 전달하려는 국내외 정세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미시적인 내용은 세부 주제를 통해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주제 영역은 ① 정치 ② 군사 ③ 농업 ④ 경제 ⑤ 문화·사상·교육 ⑥ 건강·생활 ⑦ 기념일·명절 등으로 구분했다. 대부분 군사와 정치는 함께 등장하지만, 만주국의 신문 체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전쟁 시기의 특수성이 강했기 때문에 정치와 군사를 분리했다. 정치 영역에서는 국가 정책, 국가 정치사상, 법률 규칙, 국가 외교, 다른 나라의 행위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 일본의 중요 정치인에 대한 홍보 및 소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 영역은 군대 건설과 전쟁 이념, 각국의 전황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경제 영역은 국가 경제 발전, 산업 건설, 금전 저축, 무역 및 자원 개발 등을 포함한다. 농업 영역은 농민

과 농업의 발전과 관련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문화, 사상 및 교육 영역에서는 문화생활 역사배경 및 학교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강과 생활 영역에는 사회설문을 통한 생활습관 규범화, 위생상식 대중화, 질병예방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기념일과 명절 영역, 여기서 말하는 기념일은 일본의 전쟁승리를 기리는 기념일, 혹은 만주국이 이룬 업적, 만주국의 국경일, 춘절과 같은 전통적인 중국 명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메시지 대상이다. <대동보> 사설의 제목과 본문 내용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사설의 대상이 대부분 국가나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쟁시기 민감한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다. 이에 사설의 메시지 대상은 크게 특정 국가와 관련된 '국가'와 국가와 관련되지 않은 '비국가'로 구분했다. '국가' 영역에서는 ① 만주국 ② 일본 ③ 중국통치구역 ④ 소련 ⑤ 영미 유럽·동남아 ⑥ 조선 ⑦ 몽골이 포함되고, 여기에 ⑧ '비국가'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유목을 도출했다. <대동보>가 만주국 신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과 만주국이 주로 등장했다. 또한 당시 중국 동북 지역의 만주만이 일본인에 의해 통제되었고, 그 외에 많은 중국 지역은 중국공산당이 통치하거나 국민당 정부가 점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통치구'라고 불렀다. 만주 내 국민들도 중국의 다른 지역 상황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사설에서 다뤄졌다. 동시에 전쟁에 참여한 영미, 유럽, 소련 등도 사설에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대동보>가 어떤 관점에 근거하여 사설을 작성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동보>는 정부 기관지로 일본과 만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만주국 건립 홍보 언론인 '대동아 공동번영 정책' 및 <대동보>의 일부 사설에 따르면, 일본은 아시아 약소국의 공동번영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가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영미 패권주의에 억압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가담했고, 대동아 지역 사람들이 단결하여 일본을 지지해야 하며 일본의 전쟁은 인애가 넘치는 '성전(聖戰)'이었고 영미(英美)야말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묘사된 바 있다. 또한 일본이 중국인의 만주국 건립을 도운 합리성을 논하고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사설도 많았다. 그리고 중국 다른 지역의 혼란과 무능을 지적하고 시비를 전도하여 중국 항일지도자 및 항일당파, 애국조직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적을 비하하고 자신을 미화하는 키워드가 많았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프레임은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비난'인데 영·미의 패권적 행태를 폭로하거나 중국 통치구역 당파의 무능과 정부의 혼란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찬미’인데 동아시아를 위해 싸운 일본의 자애를 선양하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미화하고 꼭두각시 만주국과 여러 나라에 일본의 원조를 알리고 있다. 셋째는 ‘화제전환’인데 정치, 군사와 관련 없는 이슈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호소’인데 만주 민중을 선동하여 그들이 진심으로 만주국을 인정하게 하고 민심을 결집하여 일본 전쟁에 힘을 보태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설명’인데 정책에 대한 설명, 특정 사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문화와 역사 이야기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3) 신뢰도 검증

신뢰도란 동일한 내용을 한사람이 반복해서 코딩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코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일관성을 말한다. 이에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연구자가 코딩한 1,218건 사설의 약 10%에 해당하는 120건의 사설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시기 신문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국인 언론학 교수 1명이 연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코딩한 뒤에 일치 여부를 측정했다. 분석에 앞서 코더들은 분석의 내용과 분석유목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120개의 사설에 대해 홀스티(Holsti, 1969)의 검증공식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시기는 완전히 일치했고, 주제영역에서는 0.98, 메시지 대상 0.98, 프레임은 0.96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을 마친 데이터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IV. 연구결과

1.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주제 영역

만주국 정부기관지인 <대동보>의 사설에서 주로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치 분야(40.4%, 492건)를 다룬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군사(17.7%, 216건), 문화·사상·교육 분야(16.4%, 200건)를 다룬 경우가 가장 많았고, 16.4%(200건), 경제와 건강·생활(각각 8.5%, 103건), 기념일·명절(6.0%, 73건), 농업(2.5%, 31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시기별 사설의 주제영역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p < .001$).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만주국설립초기에는 정치 분야(50.0%, 215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군사(18.6%, 80건), 문화·사상·교육(15.6%, 67건), 경제(7.9%, 34건), 건강·생활(3.7%, 16건), 기념일·명절(3.3%, 14건), 농업(0.9%, 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일전쟁시기에는 정치 분야(36.7%, 192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사(18.0%, 94건), 문화·사상·교육(17.2%, 90건), 건강·생활(12.2%, 64건), 경제(6.7%, 35건), 기념일·명절(6.3%, 33건), 농업(2.9%,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태평양전쟁시기에는 정치 영역(32.1%, 85건)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이어 문화·사상·교육(16.2%, 43건), 군사(15.8%, 42건), 경제(12.8%, 34건), 기념일·명절(9.8%, 26건), 건강·생활(8.7%, 23건), 농업(4.5%, 12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주제 영역

주제영역	시기			전체
	만주국 설립시기	중일전쟁시기	태평양전쟁시기	
정치	215 50.0%	192 36.7%	85 32.1%	492 40.4%
군사	80 18.6%	94 18.0%	42 15.8%	216 17.7%
농업	4 .9%	15 2.9%	12 4.5%	31 2.5%

경제	34 7.9%	35 6.7%	34 12.8%	103 8.5%
문화·사상·교육	67 15.6%	90 17.2%	43 16.2%	200 16.4%
건강·생활	16 3.7%	64 12.2%	23 8.7%	103 8.5%
기념일·명절	14 3.3%	33 6.3%	26 9.8%	73 6.0%
전체	430 100.0%	523 100.0%	265 100.0%	1218 100.0%

$\chi^2=66.194$, $df=12$, $p=.000$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동보> 사설에서는 정치, 군사, 문화·사상·교육 등 관련 영역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제, 건강·생활, 기념일·명절, 농업 등에 대해서도 두루 다루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 군사 영역의 경우, 신문 발행 초기에서 후기로 올수록 그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농업, 경제, 기념일·명절 관련 사설은 후기로 올수록 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기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병사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후기로 올수록 인민들의 생활 관련 내용을 더 많이 다룸으로써 유화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은 만주국의 본토 정책, 국내외 정치 상황을 사설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만주국에 신문을 창간한 일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동보>는 정부의 정치적 태도를 전파하기 위한 일종의 ‘스피커’로 활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설에서는 정부의 시기별 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설에서는 경찰 및 정치의 개혁을 언급하며 정책 변화와 정부 경무사 부서의 태도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만주국이 성립되기 전, 구정권의 관할 하에 경찰은 종종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고 직권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행패를 부렸다. (중략) 국민이 원하는 경찰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인데 구정권은 경찰 직무 설치만 알았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몰랐기에 민원이 아주 많았다. (중략)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 만주국의 경찰 정치 상황이 정비되어 효과가 아주 좋다. 첫째는 만주 정부의 감독 역할이었고 둘째는 일본 정치의 방법을 배웠으며 셋째는 일반

관리인 경찰이 왕도 정치를 배우면서 본인의 사상도 진보했다. (중략) 만주국 경찰이 떳떳한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정부 경무사의 이번 정비는 경찰을 서민들이 좋아하는 경찰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우리의 경찰이 국가의 영광이 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진한다면 경찰의 경비가 늘어나도 국민은 기꺼이 부담할 것이다.” (<대동보>, 1934. 6. 13.)

군사 분야는 일본의 전황 및 잇달아 일어난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 상황이 매일 시시각각 변화하고 국민은 전쟁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해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군사적 내용과 관련된 사설이 많았다. 이와 함께 사설은 병사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돋우며 일본의 승전정신을 강조해 일본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쟁터에서 전쟁 상황이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경우,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일본과 동아시아의 승리는 큰 위세를 떨쳤다. (중략) 우선 필리핀에서는 미국인들이 남양의 중요한 아시아 근거지인 필리핀을 침공하였는데 개전 직후 황군은 미군을 바로 몰아냈고 미군은 황군 앞에서 오합지졸로 한 번에 무너졌다. (중략) 다음으로 호주에서는 일본군 육해공전대가 6일 적군을 발견하고 즉시 진격하여 장렬한 대형 해전을 시작하였고 황군의 전과는 혁혁하였다. (중략) 미국의 항공모함 5개를 격침하고 영미 연합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대동보>, 1942. 5. 12.)

또한 문화·사상·교육 분야와 건강·생활 분야의 경우에는 만주국에서의 문화식민화와 교육식민화를 중시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여준다. 문화·사상·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설을 대거 발표한 것은 일본 정부가 만주국의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독자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상에 영향을 주고 사상을 통제하여 세뇌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유학생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 (중략) 일본 우방과 함께 공동 번영

을 이루려면 동포끼리 같은 언어를 구사해 언어 장벽을 허물고 언어 소통을 통해 양국의 문화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방인 일본에 많은 유학생을 보냈으며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면 정말 유용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중략) 정부는 일본 유학생의 전공에 따라 경비를 보조해 줄 것이다.” (<대동보>, 1935. 6. 27.)

예를 들면 위의 기사는 정부가 일본 유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유학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일본어와 일본 문화, 기술 등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문화침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과 생활에 관한 내용에서는 만주국민의 생활을 규범화하고, 만주국 인민의 생활을 현대화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생활양식에 근접하도록 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민중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자 했다.

“국민은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여름철이 가장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전염병과 유행병이 많아 사람들이 음식과 옷차림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병에 걸릴 수 있다. 그 중 여름 전통 음료의 위생은 아주 중요하다. 음료의 위생 점검을 소홀히 하고 바로 마시면 병이 날 수 있다. (중략) 일본에서는 일부 음료가 발효 또는 기타 반응 변화가 있으면 즉시 버리고 판매를 중단한다.” (<대동보>, 1937. 7. 18.)

경제 분야에서는 은행 정비, 금융화폐 도량형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며, 이 외에도 ‘만주철도’, ‘만주공업실업’, ‘만일경제동맹’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경제 관련 사설에서는 만주국의 경제발전과 공업발전을 중시하는 사설이 많았다. 이는 만주가 일본의 도움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만주국의 번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 볼 때, 이는 일본이 만주국을 전쟁의 군사기지로 삼고 중국 동북지역의 막대한 자원개발을 통해 무역 축재를 의도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 동북 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을 통해 무역을 실시하고 재물을 착취하였으며 군수공업, 중공업 발전과 석탄자원 개발 등에 주력했다. 하지만 아래의 사설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의 자원 약탈을 만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이라 포장하고 있다.

“우리 만주국의 천연자원은 모두 지하에 숨겨져 있어 개발해야 할 자원은 부지

기수지만 인재와 개발 자금이 부족해 지금처럼 풍부한 자원을 대부분 낭비하고 있다. 만주와 일본이 동맹이 되어 자원개발과 경제발전, 공동번영을 함께 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대동보>, 1933. 8. 19.)

만주국은 중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토양이 비옥했다. 국가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 농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에게 농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을 호소하는 것은 사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인류생활의 필수품은 모두 농촌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생산력을 대내적으로는 자급자족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 무역을 증가해야 한다. (중략) 우리 나라는 땅이 넓고 물자가 많고 토지가 비옥하여 인민의 직업은 농업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중략) 생산량 증가를 통해 국가 물자의 자유로운 배급을 실현하며 농업 진흥에 대한 국민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대동보>, 1937. 3. 11.)

기념일과 명절은 만주국 시기별로 일정한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만주국이나 일본군에 대한 국민의 정체성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우며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구교항일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다. 빨갱이들의 항일 분위기가 전쟁의 연기 속에 가득 차서 중국을 뒤덮고 있다. (중략)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불쌍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집을 잃고 도처로 떠돌아다녔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항일의 희생이 이렇게 컸으니 사실은 그럴 필요 없이 우방인 일본의 선의의 도움과 정책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며 갈등을 확대하지 말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략) 중국사변은 어느덧 1주년이 되었고 중국의 국가운명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군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 만주와 일본의 전체 국민들처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바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행운이다.” (<대동보>, 1938. 7. 7.)

2.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메시지 대상

<대동보> 사설의 메시지 대상은 전체적으로 만주국(38.5%, 469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미·유럽·동남아 지역(16.2%, 197건), 중국 통치구(14.5%, 177건), 일본(14.4%, 175건), 비국가(9.4%, 114건), 소련(5.3%, 65건), 몽골(1.5%, 18건), 조선(0.2%,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만주국 설립시기에는 만주국(29.1%, 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통치구(23.0%, 99건), 그리고 일본(17.2%, 74건), 유럽·동남아(10.9%, 47건), 비국가(9.5%, 41건), 몽골(2.1%, 9건), 조선(0.5%, 2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일전쟁 당시에도 만주국(42.4%, 222건)이 가장 많았고, 영미·유럽·동남아(17.8%, 93건), 일본(11.3%, 59건), 중국통치구(13%, 68건), 비국가(8.6%,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련(5.4%, 28건)은 만주국 설립시기보다 다소 감소했고, 몽골(1.5%, 8건)은 이전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조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시기에는 여전히 만주국(46.0%, 122건)이 가장 많았지만 그 수치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 다음으로 영미·유럽·동남아(21.5%, 57건)가 많았고, 일본(15.8%, 42건)은 앞선 시기와 비슷했으며, 비국가(10.6%, 28%)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중국통치구(3.8%, 10건)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크게 감소했고, 소련(1.5%, 4건)도 눈에 띄게 줄었다. 다음으로 조선과 몽골(각각, 0.4%,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메시지 대상

메시지 대상	시기			전체
	만주국 설립시기	중일전쟁시기	태평양전쟁시기	
위만주국	125 29.1%	222 42.4%	122 46.0%	469 38.5%
일본	74 17.2%	59 11.3%	42 15.8%	175 14.4%
중국통치구역	99 23.0%	68 13.0%	10 3.8%	177 14.5%
소련	33 7.7%	28 5.4%	4 1.5%	65 5.3%

영미·유럽·동남 아	47 10.9%	93 17.8%	57 21.5%	197 16.2%
조선	2 .5%	0 .0%	1 .4%	3 .2%
몽골	9 2.1%	8 1.5%	1 .4%	18 1.5%
비 국가	41 9.5%	45 8.6%	28 10.6%	114 9.4%
전체	430 100.0%	523 100.0%	265 100.0%	1218 100.0%

$\chi^2=96.355$, $df=14$, $p=.00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설의 메시지 대상은 크게 ‘국가’와 ‘비국가’로 그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국가’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 중에서는 만주국과 관련된 사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미와 기타 지역, 일본 순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세운 만주 괴뢰정부임에도 신문 사설에서 일본의 비중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대동보>가 일본인이 만주국에서 창간한 중문신문으로 독자 대부분이 만주 민중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만주국 관련 의제들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친밀도와 몰입도를 제공할 경우, 만주 내 중국인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전파하려는 이념을 만주국민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도록 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만주국 관련 사설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만주국의 최신 정책과 만주국의 국내외 발전성과를 널리 알려 중국인이 만주국을 인정하게 하고자 했다. 둘째, 만주국에 대한 일본의 도움을 널리 알려 일본 전쟁을 합리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만주국민의 새로운 생활 규범을 알리고, 전체 국민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

“그동안 전국 장병의 일치된 노력과 우방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한 나라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중략) 만주국 설립의 필요성과 장래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다. (중략) 계속해서 고대 역사부터 만주와 중국의 관계를 논하고 일본 학자들의 생각에 따라 중국 영토를 분단했으며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면서 국토 국경 문제를 의식해 만리장성을 쌓았고 만주는 만리장성 밖에 있었는데 이는 만주와

중국이 원래 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만주국이라는 땅은 20여 년간 군벌들에 의해 점거되고 러시아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고 따라서 “일본은 일찍부터 만주에 대해 조화롭게 생각하고 영토 야심을 갖지 않았고 떳떳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동보>, 1933. 4. 19.)

이러한 사실 내용에 대해 일본 문학박사 야노히토이치(矢野仁一, 1923)는 “만주는 원래 지나의 영토가 아니다”라며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중국 동북을 답사해 만주와 중국을 두 나라로 구분하는 일본 역사학자도 있고, 일본과 만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동북 점령 합리화를 위한 여론을 조성했다. 이 글은 만주국 성립 10여 년 중 유일하게 일본이 만주국 설립을 도운 정당성을 논하며 만주 독립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겉으로는 만주국의 전말을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만주국 침탈에 대해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만주국의 합리적 여론 조성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썼고 동북 침략을 동북의 독립을 돕는 것이라며 진실을 왜곡했다.

영미 유럽 등 관련국 사실이 많았던 것은 일본이 여론 조작을 위해 사실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실을 통해 전쟁의 화살을 미국과 영국 등으로 돌리고 유럽 각국의 혼란한 전시상황을 소개하여 의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해 만주국 국민들에게 외부세계가 혼란스럽고, 특히 영미·유럽 각국이 전쟁의 발원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다. 이처럼 사실 내용은 대부분 영미 위주의 부정적인 소식이었으며 이들 국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만주국 후기에 들어 일본이 전쟁의 범위를 동남아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태국과 베트남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매우 불안정하며 유럽 각국이 서로 결탁하고 꼭두각시를 내세우고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중략) 영국 프랑스로 대표되는 열강들이 유럽을 조종하고 있다. 우군인 독일은 참패한 이래 줄곧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 의해 억압되어 왔다. (중략) 독일인들은 교훈을 얻어 경험으로 삼고 절대로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이탈리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략) 지중해 패권 문제에 대해 영국과 이탈리아가 의견이 어긋났는데 의견이 다르면 반드시 앞으로 갈등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신사조약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중략) 앞으로 유럽의 정세는 수시로 변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동보>.

1939. 1. 15.)

다음으로 일본과 중국 통치구역의 사설은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었다. 일본과 관련된 사설들이 대거 게재된 것은 만주와 일본의 협력과 직결되어 있다. 문화·정치·군사 등 일본의 모든 면을 다루며 만주국 독자들에게 일본의 우수성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일본의 정치적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이 일본을 신뢰하고 숭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예컨대 다음의 사설은 일본 내각의 변화에서 출발해 만주와 다른 나라에 대한 일본의 새 내각의 입장과 정치적 태도를 보여준다.

“새 내각이 들어선 이후 일본의 정세는 점차 안정되었고 만주국은 일본의 좋은 이웃으로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웃끼리는 이렇게 영육을 같이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내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국가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 내각의 향후 정책과 근본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주국에 대한 지원은 여전하며 이는 일본 7000만 국민의 민심이기도 하므로 일본 내각이 아무리 변해도 만주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반면 일본이 유럽과 미국에 대한 방침은 일본의 국련 탈퇴 이후 동서양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들이 우리 동양의 일에 참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본도 더 이상 서양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할 것이다.” (<대동보>, 1934. 7. 10.)

중국 통치구역은 앞의 두 시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일본보다도 사설건수가 많았다. 중국 통치구역에 관한 사설은 만주국 시기 내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항일전쟁과 일본의 전쟁 중심이 옮겨지면서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중국 관련 사설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영국·미국·유럽·동남아 등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좌절되고 전장이 점차 옮겨진 결과였다. 중국 통치구역의 경우, <대동보>의 사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 정권정책의 결함이고, 둘째는 국공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고, 셋째는 국내가 혼란스럽고 인민들이 불쌍하다는 것이다.

“장개석은 이미 남도 북도 돌보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중략) 장개석은 제2의 장학량이 되었고 국민정부도 곧 문을 닫게 되며 중국 인민의 재난은 여

기서 끝날 수 있다.” (<대동보>, 1933. 4. 16.)

일본이 신문을 통해 중국 국민당의 허점을 부각시켜 중국 내 대혼란을 조장함으로써 자국 정당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음을 볼 수 있다.

“노구교의 불길이 번진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한다는 구호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항일전쟁에 대한 국공협력을 호소했다. 그들의 목적은 사실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원래 공산당은 군대를 모아 사방으로 토벌하고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항일을 구실로 전쟁을 연발했다. 애국을 명의로 중국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항일이라는 미명 아래 무고한 백성들이 연루되어 중국에서 큰 충동을 일으켰다.(중략) 국공합작은 항일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각자의 머리를 굴리면서 이익을 쟁취하고 있다.” (<대동보>, 1939. 11. 17.)

소련 관련 사설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러일전쟁 이전까지 중국 동북부 지역이 러시아에 의해 통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만주국 설립시기에 소련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련에 대한 사설도 대부분 러시아에 대한 위협론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련의 과격주의는 병균과 같이 가장 전염성이 강하며 격리에 주의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다. (중략) 소련의 위험도는 불 보듯 뻔하다. 소련은 빨갱이가 만연하도록 부추겨 왔으며 소련에 가까운 나라는 모두 불행해 질 것이다. (중략) 소련은 또한 간사한 장사 두뇌를 가지고 자신의 병력에 의지하여 불평등 조약을 맺어 약소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략) 중국 일부 지역도 현재 소련에 의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동보>, 1933. 11. 11.)

위의 사설에서는 소련에 대한 일본의 염려와 금기를 잘 보여준다. 반면, 만주국 말기 일본이 여론의 주요 전쟁터를 미국과 영국 쪽으로 돌리면서 러시아에 대한 사설은 감소했다. 그동안 몽골과 조선에 대한 몇 건의 사설들이 등장했는데, 만주국의 ‘만·몽·선·일·한 5족협화’ 정책을 종합해 보면, 만주 내 조화로운 관계를 부각시키고 농업과 사업 발전을 통

해 만주국에서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만주국의 소수 민족 정책은 몽골족과 조선족, 그리고 다른 외래 이민들의 만주국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만주의 경제건설과 농업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다음 사설에서는 만주가 주창한 ‘만선일체정책’과 당시 만주국이 한반도 조선인들에게 만주국 이주를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만일동포를 위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다. (중략) 함께 호혜호리하며 앞으로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 (중략) 일본이 만주국에 투자하고 좋은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만주국의 국력이 날로 왕성해지자 조선 인민들이 만주로 와서 장사하였다 (중략) 현재 만주국으로서 토지가 비옥하여 아직 개간되지 않았고 상업도 유치하여 발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임무는 만일선 동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동종동문, 공존공영 해야 한다.” (<대동보>, 1934. 4. 20.)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와 관련이 없는 ‘비국가’에 대한 사설은 대부분 전통문화, 역사적 배경 등과 같은 내용, 새로운 사상에 대한 견해, 특정 주제에 대한 저자의 소감과 깨달음 등이 담겨 있다. 이처럼 수많은 국가와 정치·군사 관련 내용은 독자들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으니 비국가적인 내용을 적절히 끼워 넣어 독자들의 흥미와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사설에서는 당시 관심을 모았던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

“서양 문화의 풍조가 동양으로 불어오면서 남녀권리 평등의 구호도 유행하였다. 유신파의 일부 진보적 여성들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과학을 조금 배우기는 했지만 거의 모두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상의 요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여자들은 방탕한 기질을 가졌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다. 여성해방을 제창하고 밖에 나가 공개적인 사교활동을 할 수 있고 밖에서 일하고 싶고 남자와 같은 출발선에 서고 싶어 한다. (중략) 사실 남녀평등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의 보장과 대우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성별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원래 연약한데 어떻게 남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자는 집안의 노인을 섬기고 아이를 돌보는 데 능하

여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다. 따라서 여자가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사회에 대한 공헌이다.(중략) 옛 사상은 버려야 하지만 여자가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를 교육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남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대동보>, 1937. 7. 20.)

이 사설은 여성의 새로운 사상을 말하면서 사실은 독립적인 신여성사상을 부정하고 있다. 전통과 낡은 사상을 버리라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만주국 여성의 진보와 발전을 제한하는 데에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상 통제는 <대동보>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3.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프레임

<대동보> 사설에서의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비판(36.5%, 444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찬미(22.0%, 268건), 화제 전환(16.7%, 204건), 호소(16.1%, 196건), 설명(8.7%,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만주국 건립초기에는 비판(44%, 189건)이 다른 프레임을 크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찬미(25.1%, 108건), 그리고 호소(13.0%, 56건)와 화제전환(11.2%, 48건)은 서로 비슷했으며, 설명(6.7%, 29건)이 가장 적었다. 이어서 중일전쟁시기에는 비판(36.9%, 193건)이 역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제 전환(21.2%, 111건)은 중국 항일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 두 배로 증가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찬미(16.4%, 86건)와 호소(16.6%, 87건)의 비중은 거의 같았고, 설명(8.8%, 46건)은 가장 적었다. 태평양전쟁시기에는 찬미(27.9%, 74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비판(23.4%, 62건)이 많았지만, 그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호소(20.0%, 53건)의 비중은 높아졌는데, 이는 당시 만주국의 태평양전쟁을 위한 모든 노력을 호소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화제 전환(17.0%, 45건)과 설명(11.7%, 31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대동보> 사설의 시기별 프레임

프레임	시기			전체
	만주국 설립시기	중일전쟁시 기	태평양전쟁시 기	
비난	189 44.0%	193 36.9%	62 23.4%	444 36.5%
찬미	108 25.1%	86 16.4%	74 27.9%	268 22.0%
화제전환	48 11.2%	111 21.2%	45 17.0%	204 16.7%
호소	56 13.0%	87 16.6%	53 20.0%	196 16.1%
설명	29 6.7%	46 8.8%	31 11.7%	106 8.7%
전체	430 100.0%	523 100.0%	265 100.0%	1218 100.0%

$\chi^2=56.554$, $df=8$, $p=.000$

1) 비난: 영미의 패권적 행태 및 중국 통치구에 대한 비판

프레임 분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판이었고 그중에서도 만주국 초기에는 중국 통치구의 각 정부에 대한 비판과 과장된 모독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비판적 언론보도를 통해 만주국 국민들로 하여금 ‘항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유도했고, 동시에 만주국 밖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만주국 내가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이 본격화된 후 비판의 화살은 주로 항일을 주장한 공산당과 국민당으로 향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설에서는 이들 당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중국의 불행은 이들 당파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반공을 제창했다. 또한 이들 애국당파들은 일본의 도움을 오해한다고 비판하는 등 사실 왜곡을 통해 민중의 인식을 왜곡시키기 위해 선동했다. 일본은 미국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 다시 비판의 대상을 바꾸어 전쟁의 주요 책임을 영미 탓으로 돌렸다. 많은 사설에서 서양인들이 세계의 패권자이며 아시아인을 괴롭히는 침략

자라고 언급했다. 이런 날카로운 비판적 사설을 통해 여론의 방향을 돌려 일본의 전쟁 과오를 약화시키려 했다.

“풍옥상과 장개석의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 미래의 정치 형세에 영향을 준다. 화북 휴전 이후부터 풍옥상은 국민당의 장개석을 온갖 죄목과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 시작했다. 장개석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병력을 모으고 많은 세력을 끌어들이어 장개석을 반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국은 이제 막 휴전했는데 또 큰 내전을 직면하게 될 터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중국은 내정불통일, 정신불단결, 재정력과 실력 부족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 외국 사람들과 계속 싸울 정력이 있겠는가? (중략) 군벌의 온갖 사적인 원한, 각종 세력의 대결은 오직 중국에서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만 따질 뿐 중국 인민들의 진정한 위험과 재난은 신경 쓰지 않는다. 중국을 혼란시키는 이러한 정권들은 계속 존재해서는 안 된다!” (<대동보>, 1933. 6. 22.)

이 사설은 중국 통치구 군벌과 국민당 대표 인물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 내전의 혼란과 당파 지도자들의 무능을 비판하고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중국의 운명과 중국 인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조를 통해 중국은 현재 희망이 없다는 사상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중국 당국 정부와 각 군벌들이 항일통일의 꿈에 사로잡혀 일본의 진정한 호의를 오해하는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고혹과 도발이고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많은 정치인과 군벌들이 일본에 대해 오해하게 된 것이다. 항일, 일본 모독, 일본 배척 등 각종 수단으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그로 인해 일본의 도움을 모독하고 국민당을 항일에 협력하게 하는 것은 실로 공산당의 큰 음모이며 그들의 간계가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공산당에 반격해야 한다.(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과 만주가 힘을 합쳐 호시탐탐 노리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성공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동보>, 1937. 8. 11.)

이 사설에서는 중국의 항일사상은 물론 공산당을 대표로 하는 항일세력을 비판하고 있

다. 또한 중국이 일본의 호의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공산당과 조직을 부정하는 한편 자신의 정책을 찬양하며 일본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민주주의국가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장개석과 구소련을 원조하려고 노력해왔다 (중략) 각종 계략과 폭력으로 각 원조 국가를 끌어들이 사실상 전쟁을 부추긴 것뿐 (중략) 자신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속이는 행위는 모두가 보고 있다. (중략) 영미공동선언의 8가지 요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영미의 거짓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중략) 각종 계략과 폭력으로 세계에서 특권을 행사한다. (중략) 이 선언을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여도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영미침략자의 한 손으로 어찌 세상 모든 이의 귀를 막을 수 있겠는가.” (<대동보>, 1941. 8. 16.)

위의 사설은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의를 보여주는 사설로 일본은 이미 여론을 선도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선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며, 그 선언이 거짓이라며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이러한 사설을 통해 만주국민들에게 영미를 증오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일본이 동아시아 정의를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성공하고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의 사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부터 무력은 외교의 뒷받침이었고 강력한 무력은 외부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중략)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다시 9개국조약의 진부한 사실을 거론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정의 주장을 무시하고 월권하고 (중략) 이제 대전이 시작되어 우리 아시아를 용납하지 못하므로 영미는 이미 아시아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중략) 일본은 아시아 전역을 위해 싸우고 사활을 걸고 정면으로 방어하고 대아시아의 항전을 위해 앞장서고 (중략) 이는 대아시아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우고, 대아시아의 경제와 물자를 보전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며 (중략) 영미는 일본과 대아시아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일본은 동아시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대동보>, 1941. 12. 9.)

위의 사설에서는 영미가 약자를 괴롭히는 침략자이자 일본의 요구를 무시한 패권자이며 태평

양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피해자이니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립적이고 민감한 의제를 설정해 만주국민이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뜩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전쟁 시기였던 만큼 정보 유통 또한 매우 느렸는데, 일본은 이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만주국민들이 정부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마디로 적들을 깎아내리고 일본을 찬양하는 것은 일본이 대동아를 위해 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침략의 본성을 감추고 그 갈등의 근원지를 구미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었다.

2) 찬미: 동아시아를 위해 싸운 일본에 대한 찬양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중국과 동아시아 및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위해 일본은 ‘동아시아연맹론’, ‘동아시아협동론’, ‘대동아공영권’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의 전쟁 발동을 포함한 모든 일들은 더욱 나은 동아시아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고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이념에 힘입어 태평양전쟁 이후 발표된 일본의 사설은 관련 내용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찬미 프레임을 이용해 전쟁을 미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정책 등을 대대적으로 미화하고 홍보했다. 사설에서 적을 비하하고 자신을 미화하는 대조적인 수법을 구사하고, 이러한 강한 대조로 독자들이 일본의 군대와 정치, 문화생활 등 여러 분야에 호감을 갖도록 유도했다. 위만주 독자들로 하여금 일본은 고통 받는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진심으로 돕고 있으며,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닌 ‘세계평화의 수호자’라고 생각하게 했다. 일본은 스스로를 장렬하고 정의롭게 묘사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성전(聖戰)’, ‘대아시아 각국 각 민족 단결’, ‘신래 일본 지원’, ‘공영권 조성’ 등 일련의 키워드는 일본 본국의 무사함(无私)과 자애로움(慈愛)을 설파하고 있다. 자찬(自贊)하는 식으로 각 나라가 일본이 동아시아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전쟁 미화의 전형적인 홍보 수단이기도 하다. 일본의 전쟁 태도와 동아시아의 공영을 주장해 온 것은 다음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황군은 무적의 신의 위세를 펼쳐 상해의 포위진을 완성하고 점령한 후에는 더욱 용맹스럽게 전진하여 남경 방어선을 향해 완강히 저항하는 무수한 적군을 쳐부수었다…철옹성 같은 무수한 적군 진영을 뚫고 마침내 남경까지 가서 포위하였다. (중략) 황군은 이미 금릉을 병탄할 기개가 있다. (중략) 온 천하의 사람들이 이미 남경이 반드시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국민 정부는 여전히 거짓 과장된 홍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 우방 의군은 차마 맹렬한 힘으로 파괴하지 않았는데 마쓰이 최고 지휘관의 최대의 인자함이다. (중략) 적군은 갑옷을 버리고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사람을 보내 협상을 하여 부질없는 중대한 희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중략) 이는 중국 다수의 무고한 양민을 위해 고려한 것으로 우방 정의의 협력에 의해 진정한 민의에 부합하는 자치운동을 촉진해야 한다.” (<대동보>, 1937. 12. 12.)

‘남경대학살’ 관련 내용을 담은 다음의 사설에서는 진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하여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진실은 일본이 남경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설에서는 시비를 전도하여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을 위대하고 용맹하게 묘사하고 있다.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해했으면서도 사설에서는 일본군을 ‘정의의 군대’로, 일본 지휘관을 민간인을 배려하는 자애롭고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등 그의 인자함을 찬양하고 있다.

“아시아는 백색인종의 포악함과 억압에 3,400년 시달렸다. 그런 압박이 일본이 일어서는 시대로 이어지고 일제가 동방에서 일어섰으니 침략에 익숙한 해적, 영미 등을 몰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중략) 그래서 이번 대동아 해방전쟁이 태평양 인도양에서 터지면서 일본 해·육·공군이 동아시아의 공영을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장렬하게 출정했다. 일본군의 위엄은 동양을 휩쓸었다.” (<대동보>, 1941. 4. 2.)

다음의 사설에서는 서양인의 억압을 비판하고 일본 국력의 발전과 일본군의 궤기를 찬양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전쟁 참전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이처럼 일본은 자신의 전쟁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화하고 포장했다.

“우리의 우방인 일본은 군비가 충분하고 국방이 튼튼하며 전쟁이 빈발하는 중국과는 천양지차이며 외국의 열강은 우리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세계 각국은 반드시 일본이 동아시아를 위해 하는 각종 조치에 동의할 것이며 일본이 말하는 것은 모두 진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의 소원은 평화이며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좋은 이웃이 되어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중략) 예를 들어 일본과 우리 만주국의 우호관계, 상호적 화목과 긴밀한 결합은 국제평화와 인도주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략) 일본의 광명정대한 흥금과 전쟁을 위한 정의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에 기자가 이를 대서특필해 영원한 기념으로 삼았다.” (<대동보>, 1936. 7. 5.)

일본은 사설을 통해 일본의 군사정책과 전쟁책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찬미해 왔다. 일본이 계속하여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사설에서는 일본의 평화애호를 강조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들이 일으킨 공명정대하고 정의롭다는 관점을 만주국 국민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며칠 전 성명을 통해 일본이 중국 지역에 대한 근본 정책을 설명했다. 첫째, 일본과 중국이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기를 바란다. 둘째, 중국의 통일은 자신의 각성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서양인은 중일 관계를 이간질하니 믿어서는 안 된다. 넷째, 일본은 중국의 독립 자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은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일본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악의가 없다. 동아시아의 큰 번영과 평화만을 원한다. 중국과 동아시아는 일본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며 일본군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 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서양 열강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 우리 대동아를 괴롭힐 것이다. 일본은 우방으로서 현재 동아시아의 미래와 전반적인 정치 형세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헛소문을 믿지 말고 반드시 일본의 자애로움을 믿어야 하며 서양인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대동보>, 1934. 4. 30.)

일본 정부는 사설을 통해 현재의 정책 이념을 자주 논했다. 위의 사설에서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과 태도를 논하고 무조건 중국을 돕고 지지한다는 일본의 정책을 미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두 서방의 도발과 다른 나라의 오해로 치부했다. 또한 일본 자체를 백익무해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

3) 화제전환: 만주국 국민의 민심 안정

일본이 만주국을 통제하는 동안 말끝을 흐리고 화제를 돌림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정치와 군사, 전쟁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농업, 국민경제 발전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화제를 전환했으며, 민중들이 만주국은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만주 국내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앞서 살펴본 시기별 사설에서 다룬 주제를 살펴보면, 1941년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이후 농업, 경제, 문화교육 분야에 관한 사설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이 만주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민중의 주의력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주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추가함으로써 만주국이 안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허상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는 '제코가 석자'였지만, 그런 불안감이 국민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민생 관련 주제를 많이 다룸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돌렸다. 또한 각종 기념일에 대한 사설을 통해 민심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1942년 5월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주도권을 잃고 번번이 좌절했다. 하지만 신문은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은 채, 문화, 교육, 경제, 생활 등 관련 내용을 다룸으로써 국민들의 주의를 전환시켰다. 예컨대 1942년 5월 15일 '동아건설 대박람회의 의미'에서는 일본이 조력한 동아시아 현대화의 성과를 내세웠고, 5월 22일 '동원대회와 동아시아 공영권의 완성'에서는 전장이 초토화됐음에도 동아시아 공영권의 이념을 고취하고 여전히 만주 국민이 일본 정부의 도움에 의지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경제승리 쟁취'에서는 전쟁의 승패보다는 만주국 발전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무력전쟁 외에 우리 경제전의 승리를 완성해야 한다.(중략)국민으로서 경제 건설에 어떻게 힘을 보태야 할까.(중략)한마디로 자기 주도적 증산 노력뿐 아니라 모든 국가정책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전쟁 반년 만에 황군이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것은 동아시아 명족의 역사적 영광이다.(중략)따라서 공영권 경제는 자급자족해야 하고 동아시아의 각 민족이 힘을 합쳐(중략)동아시아의 경제력을 확충해야 하며 동아시아의 무

력전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대동보>, 1942. 7. 3.)

“우리나라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며 도처에 황금이 깔려 있는 곳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올해는 하늘이 주신 은혜로 오곡이 대풍년이고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정말 만인이 경축할 좋은 해이다. 신묘에서 큰 제사를 지내야 한다. 황제 폐하께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국운의 번영을 기원하실 것이다. 우리 백성들은 신력을 믿고 생산량을 늘리고 농업에 집중해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대동보>, 1942. 10. 17.)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식량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인민은 국가의 근본이며 인민은 식량을 가장 중요히 여긴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모두 인민의 식사 문제를 보장해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식량 생산을 늘리고 식량을 광범위하게 비축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일반인들이 배불리 먹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중략)그런데 현재 신경의 경우 식량 가격이 4원 2, 3에서 갑자기 4원 5, 6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다른 물건들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가격인상은 대자본가가 조작한 것으로 그들이 대량으로 곡물을 사재기하고 다시 일반인에게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다고 들었는데...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기관은 각 지방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대응하고 상인협회를 탄압하며 급등한 가격인상을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대동보>, 1987. 8. 5.)

“(중략)건물이 웅장하고 디자인도 아름답고 시설도 잘 갖춰져야 번창한 도시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만주국의 도시 건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강제 건설은 하지 말아야 하며 시민과 각 기구는 맹목적으로 건설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대동보>, 1936. 10. 3.)

4) 호소: 만주국 국민 선동을 통한 참전 독려

일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사용했다.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돋우는 것 외에 전방의 병사들과 후방의 만주 민중을 긴밀히 결집시켰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인적, 물적

재력을 착취했다. 또 ‘물자배급제도’를 실시해 모든 물자를 군사전장에서 우선하도록 격려하고 감시하고 선동했다. 금전적 저축이든 농작물 증산이든 일본의 승리에 기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했다.

‘호소’ 프레임을 통해 군민이 한마음 한뜻일 것을 호소하고 국민들이 물자를 기부하고 돈을 기부하고 저축하고 전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많이 생산하고 개발함으로써 일본의 전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일본의 보급소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941년에는 관련 사실이 여러 건 등장했다. 1월 14일 ‘구연말 수요의 조정’, 3월 21일 ‘기대와 배급의 원할’, 4월 6일 ‘절약보국’, 6월 8일 ‘7종 생필품 통제 배급 요강 실시’, ‘저축보국’ 등의 사실은 민중을 결집시키고 마음을 모아 전쟁에 물자를 공급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대표적으로 “흥농 증산은 군민 일체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흥농증산과 통제배급’, 1942. 10. 6.)”는 전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전시상황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국가는 국민을 기본으로 성립되고 국민은 국가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와 국민은 상호 의존한다. 국운과 국가 정세에 문제가 생기고 쇠퇴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국민정신의 강약이다. (중략) 우리 국민이 씩씩하고 생기 있고 얼굴이 환하고 충성스럽고 용맹하며 나라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나라의 운세는 반드시 승승장구하여 백전백승할 것이다. (중략) 하여 근일 우리 우방인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돌며 국민정신동원강연대회를 열 것이다. 대회는 3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1.국민정신동원과 애국동원 2.만일군인위문운동 3.소비절약운동, 재력능력저축보국(중략)요약하면 온 나라가 합심하여 끝까지 버텨낸다면 우리 동아시아인의 완벽한 인격이 드러나고 전쟁의 승리와 평화도 멀지 않을 것이다.” (<대동보>, 1937. 10. 13.)

사설에서는 국민을 향해 애국심을 발현시킴으로써 참전을 하게끔 하려는 ‘애국적 동원’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긴밀히 결합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자원을 절약해 전쟁에 물자를 기여하고, 돈을 절약해 전쟁에 돈을 기부하는 것이 바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우호를 가장해 국민의 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쟁시기 <대동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호소의 방식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돈과 물품을 내놓게 했고, 이들의 행

위를 국가에 대한 보답, 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저축하여 나라에 보답하는 이치는 예로부터 들은 바가 있다. 현재는 국가의 비상시기로 국민이 하나 더 기여하면 국가가 하나 더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마찬가지로 국가가 하나 더 챙기면 국민의 복지도 하나가 더 늘어나 국민과 국가는 서로 보장되는 관계다. 이것이 저축보국의 중요성이며 국가의 긴급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 (중략) 천하의 흥망은 필부가 책임이 있다고 국민은 자신의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국가에 보답하고 국가는 저축한 돈을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다. (중략) 국가적 비상상황에 따라 국내에서는 저축보국, 저축강국을 주요 운동으로 삼을 것이다.” (<대동보>, 1939. 6. 22.)

“중국 고대 속담에 검소함에서 사치스러움으로는 넘어가기는 쉽지만 사치에서 검약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또 부잣집 밥 한 끼는 초갓집 반년 치 양식이라는 말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놀고 즐기는 것은 많은 돈을 낭비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물자가 부족하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낭비를 줄이고 국가 건설에 돈을 쓰거나 국민의 생계를 위해 돈을 쓰는 등 돈 쓰는 방식과 효율성을 최적화해야 한다. (중략) 국민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억제하고 카페, 기생집, 음식점 등 음식, 오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국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치 풍조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국민에게 근면하고 긍정적인 삶의 새로운 기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조세보국에도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다.” (<대동보>, 1939. 10. 19.)

일본의 전쟁은 만주국에 대한 막대한 물자와 금전 약탈이 필요했다. 이 사설에서는 절약을 앞세워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고 제한하며 절약한 물자와 돈을 국가에 바치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일례로, 레저세를 인상하여 국가에 납부하여 전쟁에 힘을 보태도록 설득하고 있다.

5) 설명: 정책, 역사, 전통문화 관련 정보 제공

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만주 국민들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주입한 사상에 불신을 토로 하며, <대동보>가 일본인만 대변하는 ‘매국노’ 신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독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설명’ 프레임은 정책에 대한 설명, 어떤 사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문화 역사 이야기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책 공포 및 해석,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 이야기, 전통 문화 축제 및 기타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주제는 독자로 하여금 <대동보>의 정보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며, 본질적으로 독자를 더 잘 통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며 <대동보>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와 의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만주국 관세 2차 잠정 개정이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참의부 자문을 거쳐 새 세율이 고시 시행되는 만큼 여기서 개정된 관세정책에 대한 설명을 공개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첫째, 농업과 공업의 발전을 조장한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기본으로 하고 특산물의 수출은 만주의 큰 자원이며 삼림자원과 석탄자원 등의 매장량은 세계 1위이다.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미래가 더욱 기대되며 자원개발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관세를 수정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관세를 개정해 특산품 수출에 대한 세율을 줄여 농작물 수출량을 늘린다. 두 번째, 상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상품은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현지 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셋째, 이번 수정은 영향과 파장이 클 것이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 위해서는 관세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동보>, 1934. 11. 16.)

문화교육 수준이 낮았던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정책 관련 내용이 있을 때, <대동보> 사설을 통해 정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생소하고 어려운 문구를 제외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로써 정책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입국의 근본은 법치이며 법치의 효과는 국정을 구현하고 민성을 익히는 데 있다. 법치 정신에 따르면 예로부터 법률에 의존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나라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법치를 근거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중략) 나라가 발전하면서 법률도 시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형법을 공포해야 한다. 오늘 여기에서 형법의 중요한 특징을 열거하여 여러분께 참고하도록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구정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형법의 장 중 특수한 부분은 황실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에서 황실에 대한 대역죄가 특별히 추가되었다. (중략) 이 형벌은 이전의 전통이자 통치를 공고히 하는 근본이기도 하다. 또 국내 치안보장에 대해서는 내란 나라 배신죄, 각종 치안죄, 편 가르기, 반역 선동죄, 재정 교란죄 등을 치안 문란죄로 분류하고 공무집행방해죄, 교통방해죄 등을 추가하는 등 법의 영역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둘째, 옛 전통은 가족관계와 명분, 이익을 중시했지만 오늘날에는 공과 사 중에서 공을 우선시키고 공의를 먼저 내세워야 한다. 일본 형법에 따라 형벌을 좀 늘렸다. 일본 우방을 배신하고 일본의 이익을 해친다면 그것도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아야 우방과의 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의 법의 장점을 종합하고 단점을 버리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개인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증가시키고 개인의 명예, 자유, 정조를 보호한다. (중략) 이번 법률은 황제도 명을 내려 국민이 지키도록 했으며 법률 내용이 아무 많으므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대동보>, 1937. 1. 20.)

또한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설도 많았다. 국민의 행위를 단속하고 정부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법의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적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일본이 만주국 국민을 통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위 사설에서 언급한 ‘국가 배신죄’는 일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인이 일본에 저항하고 반항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단속하고, 항일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사설에 담음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운 셈이다.

V.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만주국의 신문은 동아시아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당시의 주요 언론수단이 신문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시기의 신문 내용분석은 전쟁시기에 일본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통제하며 독자의 사상을 왜곡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동보>는 만주국 시기 일본 정부와 만주국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기관지 역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일본이 어떻게 만주국의 대표 신문인 <대동보>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전쟁기간 동안 정보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만주국 대중들은 정보에 대해 극심한 갈증을 느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여 신문 등을 통해 의제 설정을 운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만주국에서의 발언권을 장악하였으며 뉴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는 각종 충돌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뉴스 정보 구조의 불균형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이 <대동보> 사설의 주제 선정을 통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뉴스 왜곡 현상을 경계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1933년부터 1942년까지의 <대동보> 사설 내용을 분석했다. 신문이 발행되었던 10년의 시간을 역사적 배경과 결합해 만주국 설립시기, 중일전쟁시기, 태평양전쟁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했다. 그리고 세 시기에 걸쳐 일본이 <대동보> 사설을 통해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었고, 메시지 대상은 누구였으며, 어떤 프레임을 사용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동보>에서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었는지 살펴본 결과, 첫째, 모든 시기에서 정치·군사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다. 이 연구에서 사설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 분석한 결과 만주국 건국 초기부터 태평양전쟁까지 10년의 시간을 거쳤지만 사설의 정치적 홍보 목적은 변함이 없었다. 특히 정치 분야의 소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를 이어 군사적인 내

용이 많이 다루졌다. 이는 <대동보> 사설이 정치·군사 분야의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주창하는 정치사상을 선양하고 일본 군사전쟁을 미화하는 것이 사설의 주제 설정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 농업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일상적 소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융합되게 함으로써 만주국 국민들이 이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만주국의 발전과 동시에, 일본의 지속적인 전쟁으로 농업과 경제 분야의 사설은 해마다 증가했다. 형식적으로는 만주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경제소득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만주국의 자원을 약탈하고 자본을 가져가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

셋째, 문화교육생활 관련 주제가 거의 모든 시기에 다 드러난 것은 일본의 문화 식민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문화사상교육과 건강 생활은 독자의 관심을 다른 분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만주국 국민에게 일본의 문화사상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설은 독자에게 점차 영향을 미쳤고, 이로써 정부의 국민 사상 통제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정치, 군사 등 강경하고 태도가 뚜렷한 주제와 종합해 보면 <대동보> 사설의 주제는 강온양책 즉, 부드러움과 강경함을 병행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넷째, 각종 기념일을 명분으로 애국주의를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응집력을 높였다. 국가기념일이라고 하면 홍보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동보>에서 다른 기념일 관련 사설이 해마다 증가된 것은 지속적인 전쟁과 관련이 있다. 전쟁이 빈발할수록 군민의 마음을 한곳에 모을 것을 호소하고 기념일을 명분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대동보> 사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메시지 대상은 국가와 비국가로 분류했다. 국가의 경우, 사설에서 언급한 만주국, 일본, 중국 통치 구역, 소련, 영미·유럽·동남아시아, 조선, 몽골 등 7개 지역으로 상세히 분류했고, 국가와 무관한 사설은 비국가로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주국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만주 국민이 가장 관심 있고 흥미로워 하는 내용을 사설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본의 언론 통제 사실을 은폐하고 만주국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만주의 입장에서 일본의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영미, 유럽 지역, 일본은 정보 대상이 비교적 많았고 많은 사실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미화함과 동시에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를 악마화 하였다. 한편으로는 전쟁의 과오를 영미에 돌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소식을 부정적으로 다루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전하면서 일본의 보호 아래 있는 만주만이 가장 화목하고 태평성태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일본의 침략 사실을 덮었다. 일본과 관련된 사실의 경우, 일본이 인도주의적 구세주임을 표방하며 ‘공존공영, 이웃돕기’라는 선한 이미지를 강조했고, 일본의 참전은 강요된 것이며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셋째, 중국 통치구역에 대한 내용은 만주국 설립 초기와 중일전쟁 시기 만주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했다. 비판적인 언사로 중국 통치구를 타격한 것은 만주국 국민에게 항일 승리의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관련 사실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당시 <대동보>는 중국의 연이은 항일 성공과 일본의 패배에 따라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고 지면을 대폭 줄이고 중국 통치구역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만주국 초기에는 중국 통치구역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지만, 말기에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동보>의 사실이 언론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일본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언급된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군사정책과 관련된 국가들로 군사정세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다. 예를 들어 소련은 만주국 설립 초기에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고 소련과 관련된 사실의 수도 비교적 많았다.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중국 동북지방을 빼앗았다. 건국 초기에 소련이 일본 당국에 끼친 영향은 컸고, 중일전쟁 시기 소련이 공산당과 연합해 항일하는 등 소련은 여전히 일본에게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소련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태평양전쟁 시기는 일본의 전쟁 중심이 바뀌면서 소련에 대한 내용도 크게 줄어들었다.

다섯째,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과 괴뢰정권인 몽골을 대상으로 만주국 각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찬양하는 정책을 다루고, 만주 내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민족의 인민에 대해 통일적인 여론 선전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국가의 속박을 벗어나 기발한 시각으로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생활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사실을 다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에게 주입하려는 가치관도 몰래 심어 넣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대동보> 사설의 프레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프레임은 비판, 찬미, 화제 전환, 호소, 설명 등 5가지로 구분하였고,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사설 프레임은 다른 나라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다뤄졌고, 일본에 대한 찬미 또한 많았다. 영미, 유럽 각국을 세계 평화를 해친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중국 각 항일당파의 무능과 정부의 혼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타국을 비판하는 프레임과 함께 일본 자신의 인자함을 찬미하는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타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미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둘째, 중대한 사건이 빈발하거나 일본이 패배하는 등 일본에게 불리한 정세가 펼쳐질 경우, 일본은 화제를 전환하여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켰다. 일본이 승리했을 때는 크게 칭찬했고, 일본이 연이어 큰 타격을 입었을 때는 곧바로 화제를 전환해 농업경제 발전, 청소년 교육 등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민심을 안정시켰다.

셋째, 국민을 향한 호소와 선동이 담긴 내용은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증가했다. 국민에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축을 장려하며, 생산량을 증가하여 나라에 기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전쟁이 자주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을 향한 호소가 담긴 사설도 많아졌다. 만주국 설립 시기에는 일본이 전장에서 번번이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전쟁에 기여하라는 호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이 타격을 받고 전쟁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지자 농업의 증수 증산을 호소하고 전쟁에 물자를 보충하자는 사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농업 관련 사설의 증가가 이를 보여준다.

넷째, 생소한 국가정책과 정치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이 정책과 정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기관지 <대동보>의 사설은 시기에 따라 목적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주국 설립 초기, 일본 정부는 만주국 설립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만주 내 중국인은 물론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만주국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다뤘다. 중일전쟁 시기에는 대립적인 의제 설정을 통해 통치를 강화하고 민심을 안정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전란과 정책 문제를 과장하고, 만주 내에서의 발전과 일본의 인정(仁政)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이와 같은 언론활동을 통해 일본의 보호 아래 있는 만주만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했다. 만주 설립 후 중반 시기부터 일본은 태평양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침략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 그 시기 동안 일본은 아

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고, 동아시아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널리 알렸다. 동시에 민중을 향해 전쟁 물자 확보에 기여하고, 저축을 많이 하며, 모든 물자를 전쟁에 우선 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승전은 당연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일본은 이러한 여론 형성을 통해 만주국을 일본 전쟁의 버팀목으로 삼도록 유도했다. 또한 문화, 교육, 건강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뤘다. 일본은 이처럼 언론을 통해 만주인의 삶을 이끌어왔고 만주인의 문화와 역사, 풍속을 바꿔왔다. 이는 일본이 더 건강한 생활방식을 만주에 도입해 민중들의 삶을 현대적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침략을 통해 민중을 세뇌함으로써 민중의 의식을 통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일본은 사설을 통해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국민의 인식을 유도하고 재구축하며 나아가 그들의 사상을 전 방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동보>의 사설은 일본 정부의 “정치 일기예보”나 다름없었다. 신문 창간부터 몇 차례의 지면 개혁, 그리고 사설의 소재와 의제 내용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만주국에서의 신문 홍보와 여론 선동에 있어 한 번도 방심한 적이 없었다. <대동보>는 여론의 방향을 잡고 일본의 홍보정책과 홍보의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사설을 내보냈다. 만주국민의 생활에 잘 어울리고 일반인의 시선에 잘 맞았기에 쉽게 읽을 수 있었고, 또한 독자들의 관심과 몰입감을 유도한 경우가 많아 만주국에서 그 영향력과 홍보력이 매우 컸다. 당시는 특수한 전쟁시기였던 만큼 정보가 많이 부족했기에 <대동보>는 만주국 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수록, 그리고 중대한 사건일수록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설을 대량 제공했다. 이로써 대동아는 반드시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며 일본의 보호가 있으면 반드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등 민심을 안정시켰다.

<대동보>는 매년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사설 발표에 사용했는데, 이는 정부의 하향식 홍보 송출을 도왔다. <대동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일정한 빈도로 사설을 내보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전파했다. 사설이 가장 많이 발표된 해에는 1년 중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았다. 그만큼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썼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정도로 <대동보>의 사설은 일본의 주요 전쟁터 뒤편에 있는 총성 없는 다른 하나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요약하면, <대동보> 사설의 전파는 위에서 아래로의 단일적인 전파 방식이며, 설정된 의제는 뚜렷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언론은 의제 설정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유도하고 <대동보>는 일본 정부의 목표 의제와 만주국 청중의 요구를 더 잘 결합하여 최상의

전파 효과를 달성했으며 <대동보>는 여론의 형성과 유도를 잘 알고 있었다. 최상의 전파 효과를 위해, 사설의 의제 선정과 스타일은 국민의 생활과 수요에 각안했으며 만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유럽과 미국 등을 중국인의 적대적인 면에 세워 국민당과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간질했다. 그리고 사설에서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 전통 고사와 유가 경전을 많이 인용하여 일본 정부의 태도와 사상을 더욱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만주국 국민들을 포섭하고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동보> 사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대동보> 사설 분석을 통해 당시 일본이 어떻게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선동활동을 펼쳤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몇 개의 한계점도 드러났다.

첫째, 본 연구는 당초 만주국 시기 중한 양국의 대표적 신문인 <대동보>와 <만선일보>를 비교하고자 했으나 신문의 보관상의 문제와 언어의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 실현하지 못했다. <만선일보> 영인판의 선명도가 높지 않았고, 그 내용이 근대 한국어와 고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해독이 어려웠다. 만주국 문제는 동아시아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를 한·중·일의 관점에서 비교한다면, 일본이 어떻게 식민지인 만주에서 만주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고 조작했는지를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동보>가 창간되고 운영된 당시, 역사적 배경이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많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만주국의 관련 역사를 살펴볼 때 대부분 중국에 현존하는 혹은 중국에서 인정받은 역사 서적과 논문을 주로 참고했다. 따라서 단일한 방향으로의 관점 때문에 해석의 협소성이 잠재할 수 있다. 만주국 10여 년의 역사는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관여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엉켜있었던 만큼 당시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그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해당 역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전착,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선 한계와 아쉬움이 있지만, 이 연구가 향후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 혹은 만주국 신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한국 참고문헌

- 강대민.(2013). <만선일보 조선인 대체>. 개인 관련 기사목록집, 경인문화사.
- 곡로.(2008).중국 관련 뉴스 보도에 대한 담화분석.인문과학연구,19호,185-214.
- 김성태·이영환.(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 파급 (Agenda-Rippling)과 역의제설정(Reversed Agenda Setting)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175-204.
- 김재용·김창호·유수정 (2018). <만주국 속의 동아시아 문학>. 서울: 소명출판.
- 김해연.(2017).신문사설의 직접 인용 구문의 형태와 기능 연구.언어,42(3),375-400.
- 김혜주.(2022). 만주국 문학 연구에 관한 일고찰. <중국어문학>, 89호, 25-54.
- 김호준.(1998). <사설이란>. 서울: LG상남문고.
- 서라미, 정재민.(2007).한·중·일 3국 신문의 8·15 보도 비교 분석.한국언론정보학보,237-269.
- 손연정.(2023). 한국어 신문 사설에 나타나는 주관성 표현 전략 연구. <한국어학>, 99호, 65-88.
- 안정운·이종혁.(2015).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출현: 뉴스 매체와 온라인 게시판 간 이슈 속성 네트워크의 유사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59권 3호, 365-394.
- 이복실.(2018). <만주국 조선인 연구>. 서울: 지식과 교양.
- 채백.(2016).친일 청산에 대한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한국언론정보학보,79호,196-225.

중국 참고문헌

- 白润生.『中国新闻通史纲要』.北京:新华出版社,1998.
- 曹哲(2008)“论东北沦陷时期日伪报业统治政策及其实质”,2008年11月第1期.
- 陈东原.『中国妇女生活史』.北京:商务印书馆,1998.
- 程丽红、叶彤(2011).“日本侵华新闻事业的先锋分子——『盛京时报』主笔菊池贞二初探.东北史论”,2011(03).
- 东亚同文会编.『对华回忆录』.胡锡年译.北京:商务印书馆,1959.
- 蒙南生.『新闻传播社会学』.北京:中国传媒大学出版社,2007.

- 黑龙江日报社新闻志编辑室编著.『东北新闻史1899—1949』.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2001.
- 黑龙江省档案馆（1985）.“哈尔滨各界联合会反对『大北新报』公告”.黑龙江报刊，1985年内刊版.
- 胡文龙等著.『新闻评论教程』.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4.
- 蒋蕾(2009).“被遗忘的抵抗文学副刊『大同俱乐部』”，2009年,00期.
- 蒋蕾(2009).“东北沦陷区中文报纸：文化身份与政治身份的分裂——对伪满《大同报》副刊判离现象的考察.”解学诗.『伪满洲史新编』.北京：人民出版社,2003.
- 『吉林省志卷四十二/新闻事业志/报纸』.吉林人民出版社，2006，12.3.
- 『吉林省志卷四十二/新闻事业志/报纸』.吉林人民出版社，2006，12.5.
- 方汉奇主编.『中国新闻事业通史』.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83.
- 冯岩(2006).“旧长春的『大同报』”.吉林省档案馆
- 甘惜分.『新闻学大辞典』.郑州：河南人民出版社,1993.
- 关捷.『日本对华侵略与殖民统治』.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6.
- 戈公振.『中国报学史』.北京：中国新闻出版社，1985.
- 郭庆光.『传播学教程』.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2.
- 林语堂.『中国新闻舆论史』.刘小磊译.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8.
- 李良荣.『新闻学概论』.上海：复旦大学出版社,2003.
- Maxwell McCombs&Shaw，郭镇之译（2017）.『议程设置：大众传媒与舆论』.北京大学出版社.2017.
- 吴廷俊.『中国新闻史新修』.上海：复旦大学出版社,2008.
- 孙邦主编.『伪满文化』.吉林：吉林人民出版社,1993.
- 史桂芳(2002).『“同文同种”的骗局——日伪东亚联盟运动的兴亡』.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 武强(1989).『东北沦陷十四年教育史料(第一辑)』.吉林教育出版社.
- Werner J. Severin、James W. Tankard, Jr，罗世红译(2013).『传播理论-起源方法与应用』.五南图书出版公司.
- 王野平.『东北沦陷十四年教育史』.长春：吉林教育出版社,1989.
- 王向远(2005).『日本对中国的文化侵略——学者、文化人的侵华战争』.北京：昆仑出版社
- 王璐（2008）.“盛京时报研究”，东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王承礼主编.『中国东北沦陷十四年史纲要』.北京：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1.

吴于廑、齐世荣.『世界史』.北京：高等教育出版社,1994.

邢志、李成.『以史为鉴——日本制造伪满洲国图证』,吉林人民出版社,2000.

张友渔.『报人生涯三十年』.重庆：重庆出版社,1982.

张贵.『东北沦陷14年日伪的新闻事业』.

周佳荣.『近代日人在华报业活动』.香港：三联书店，2007.

钟婧(2013).“『盛京时报』研究(1941-1944)”，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Discussion on the 'Agenda for Public Opinion Formation' of Manchukuo <Daedong Newspaper>:

- Focused on Editorials -

Luo Bing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Following the Meiji Restoration, Japan embarked on a path of aggression and expansion, successively occupy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Then, in 1931, it instigated the 'September 18 Incident', establishing a puppet regime in Manchukuo and initiating comprehensive colonial rule over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During Japan's rule over Manchukuo, it is impossible not to mention that Japan used the media as its speaker. Japan sought to unify the media through strict press control and press guidance, and supported the government's control and influence over the public's ideology. The newspaper, represented by the Daedong Newspaper, was an important media weapon for Japan. The Daedong Newspaper was launched in 1933 with the support of the Japanese and was published for about ten years until it was reorganized into the Kangdeok Newspaper with other newspapers in October 1942. It had the largest circulation and influence in Manchukuo and was the most influential Chinese language newspaper.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editorials, which best represented the government's position and political attitude, is very significant. In other words, through the editorials, we can understand how Japan incited and led the opinion of colonial citizens at the tim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ubject area, message target, and frame of 1,218 editorials in the Daedong Newspaper from 1933 to 1942.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ly, in the field of topics, politics and the military accounted for the most in all periods. This shows that the editorials of the Daedong Newspaper were primarily aimed at political and military propaganda and agitation. It can be characterized as promoting Japanese political thought and glorifying the Japanese military war. In addition, Japan has covered everyday topics such as economy and agriculture to help the people of Manchukuo adapt well to local life, and by diverting the people's attention through this, it was able to carry out economic and resource exploitation more easily.

In addition, it pursued a cultural colonial policy of instilling Japanese values and cultural ideas in the people by dealing with topics such as culture, education, and health. Along with this, patriotism was promoted by commemorating various anniversaries to enhance the cohesion of the people. In this way, the Daedong Newspaper used a strategy that combines softness and firmness, that is, a two-pronged approach, by utilizing editorials on not only politics and the military but also culture and education.

Next, looking at the target of the messages, most of the content was related to countries related to Japan's political situation and wars. Among these, Manchukuo had the largest proportion, because if the position of Manchukuo wa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aders could more easily accept it. Following that, there were more editorials about the UK and Europe than about Japan. This represents an intention to guide public opinion by providing large amounts of negative and biased information about the enemy and to blame the mistakes of the war on the UK and others.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Japan, it emphasized a friendly image of Japan helping Asia, which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Daedong Newspaper editorials. In addition, it led people to lose their expectations for anti-Japanese patriotic organizations by dealing with large amounts of negative information about the Chinese ruled area. Besides, it praised the success of Japan's 'Five-Race Co-prosperity' policy through propaganda about the Korean colony and the Mongolian puppet regime. In non-state related content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state, it induced the interest of readers by dealing with lively views or life-related information that the readers can be interested in, and instilled the ideology that the government wants to instill in the citizens.

Lastly, in the Daedong Newspaper editorial frame, there was a lot of criticism of other countries, and most of the content was praising Japan. It criticized that the UK and others destroyed world peace and criticized the incompete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le praising Japan's benevolence. The most prominent feature was the contrasting strategy of belittling and criticizing other countries while glorifying Japan. Especially when a significant event occurred frequently or when Japan was defeated, it also dis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eople by changing the topic. Also, as the war progressed, Japan desperately needed a large amount of manpower, wealth, and resources for war supply. It appealed to

the people to contribute to the war and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war supplies. In addition, by explaining the policies and laws of the state in an easy-to-understand way, the citizens were able to fully understand the government's intentions. In this way, it achieved the effect of delivering the message that the government wanted to convey more concisely to the people

through editorials.

Overall, the Daedong Newspaper editorials can be said to be the 'political weather forecas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content of the editorials also changed over tim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Japan's political attitude. The Daedong Newspaper systematically dealt with editorials according to Japan's publicity intentions and policies by setting the direction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the editorial content was helpful for the life of the citizens of Manchukuo and was easy to read, which led the readers to immerse themselves. It can be said that it had a great influence and ripple effect. At that time, there was a lot of lack of information due to the war, so the Daedong Newspaper satisfied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people of Manchukuo, and as the war occurred and the more serious the event, it handled a large amount of editorials that represented the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abilized the public sentiment by planting the belief that East Asia will surely be peaceful and prosperous, and will surely be safe with Japan's protection.

The propagation of the Daedong Newspaper editorials follows a singular downward direction, and the set agendas carry a distinct political attitude. The media guide the flow of public opinion through agenda setting, and the Daedong Newspaper achieved the best propagation effect by better integrating the goal agenda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demands of the Manchukuo audience. The Daedong Newspaper was well aware of the formation and guidance of public opinion. For the best propagation effect, the selection and style of the editorial's agenda started from the life and demands of the citizens, and it undermined the trust of the people in the Nationalist Party and the Communist Party by setting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tc., against the Chinese in a way that the people of Manchukuo could easily accept. Also, it quoted a lot of well-known traditional Chinese stories and Confucian classics in the editorials to more naturally instill the attitude and though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Capturing the people of Manchukuo and leading public opinion in this way is the most distinct feature of the Daedong Newspaper editorial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Japan guided and reconstructed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by setting the agenda they wanted to show through the Daedong Newspaper editorials, and further controlled their thoughts comprehensively.

Keywords: Daedong Newspaper, Manchukuo, Japan, editorials, frame, agenda setting